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2017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나도 숨 쉬고 싶다!”

청소년 학교폭력과 자살

- 일시 _ 2017. 4. 29 (토) 12:30~19:30
- 장소 _ 인하대학교 하이테크관 대강당(B1층)

주최 _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후원 _ 인하대학교, 한국심리학회

- 한국상담심리학회 : 학술 및 사례심포지움 1회 인정
- 한국임상심리학회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연수평점 1시간 40분
- 한국학교심리학회 : 학교심리사 사례연구활동 1회 인정
- 한국건강심리학회 : 건강심리전문가 연수평점 2시간 20분 인정
-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 범죄심리사 3시간 학회시간 인정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www.kpaci.or.kr

모시는글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봄꽃들의 향기로움으로 가득한 날에 펼쳐지는...

2017년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2017년 춘계학술대회가 4월 29일(토)

인하대학교 하이테크관 강당에서 개최됩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지식정보화시대 이후의 4차 산업혁명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국민들의 창의력이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되고

행복한 교실, 즐거운 일터, 건강한 가정이 국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춘계학술대회는

문화예술과 학문이 융합하여 조화를 이루어 내는 창조적인 장으로서

발표되고 토론된 내용들이 청소년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실제적 도움이 되고,

청소년 학교폭력 및 자살예방과 지도를 위해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춘계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인하대학교와 후원해 주신 여러 단체 및 자격증 취득,

유지와 관련된 수련시간을 인정해 주신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학교

심리학회, 한국건강심리학회,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계절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2017년 2월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회장

박영신 배상

목 차

학술대회 일정	1
사회자 소개	2

제 1부 청소년 학교폭력과 자살 [연극공연: 나비]

연극공연	5
------------	---

□ 주제를론 1

토론자 소개	10
토론글	
• 청소년 학교폭력과 자살 예방에 대한 실천방안 모색 / 이상호 성남 동광고등학교	11

제 2부 청소년 학교폭력과 자살 [토크 콘서트]

노래가 있는 이야기 콘서트	15
인문학 콘서트에 관하여	16

□ 주제를론 2 : 전문가 토론

토론자 소개	21
토론글	
• 학교폭력의 개입방안 / 주영아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22
•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대한 토론요지 / 정일환 대구가톨릭대학교	26
• 청소년의 학교폭력과 자살예방을 위한 제언(생명존중 교육의 관점에서) / 하상훈 한국생명의전화	34
• 학교폭력은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이다. /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36

포스터 발표 논문

• 사립유치원장의 감성적 리더십, 교사의 정서지능, 교사효능감 및 직무만족 간의 관계 연구 / 조정대 인하대학교	41
• 초등학교에서의 분산적 리더십이 교사학습공동체와 교사수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 김현 중흥초등학교	43

• 초등학교 교사가 인식한 학교장의 진성 리더십, 학교장-교사 교환관계, 교사의 팔로워십 및 교직원신 간의 관계 / 이봉재 하성초등학교	45
• 대학생들의 아동기 언어적 학대경험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 평가 두려움을 매개로 / 조무자 주영아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47
• 'Identity' 기반 역량 교육이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시사 / 신은섭 인천발산초등학교	49
• 여대생의 신체존중감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 : 부정적 사회적 자기개념과 거부민감성 매개효과 중심으로 / 신지원, 김민희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51
• 그릿 연구에 대한 국내 동향분석 / 조선휘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52
• 소아암 생존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탐색적 연구 : 외상후 성장,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를 중심으로 / 김의연 인하대학교	55
•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과 자기에 대한 인식 / 차연실, 박영신 인하대 교육학과	57
• 성별 성격과 행복의 차이에 대한 연구 / 김정실, 박영신 인하대 교육학과	59
• 직업유형별 직업에 대한 회의, 직업적성, 직업흥미 : 초등교사와 대기업 직장인을 중심으로 / 조은형, 박영신 인하대학교	61
•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학교 부적응의 관계 / 한미순 인하대 교육학과, 가명숙 인천송현초등학교, 박영신 인하대 교육학과	63
• 정서지능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_유머생성과 유머스타일의 매개효과 / 한정민, 김민희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65
• 청소년자립생활관 거주 남성청소년의 집단생활을 통한 자립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지 연구 / 조윤정, 주경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청소년교육학과	67
• 비판 의식(Critical Consciousness)의 한국문화 적용 : 한국판 비판의식 척도(CCS-K)의 타당화 예비연구 / 김태선 숭실대학교, 신주연 인하대학교, 송은미 서울여자대학교	69

전시 및 홍보자료

글과 그림으로 만나는 '아버지가 딸에게 들려준 이야기들' 전시 / 한국토착심리아동청소년연구회	73
교육과학사, 학지사, 중앙적성연구소	74-76

학술대회 일정

12:30 ~ 13:00 등록

제 1부 13:00 ~ 15:40

사회 : 주 경 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13:00~13:20	개회사 : 박영신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회장, 인하대학교 교수) 환영사 : 최순자 (인하대학교 총장) 축사 : 유정복 (인천광역시 시장)
13:20~14:50	연극공연 : 나비 (극단 배우공장) 주제 : 청소년 학교폭력과 자살
14:50~15:40	주제토론 1 토론자 : 조강현 (인천동양중 학생), 김미나 (학원운영), 이상호 (경기성남 동광고 학교폭력 담당교사), 학부모 (해맑음센터)

제 2부 15:40 ~ 18:00

사회 : 문 은 식 (강원대학교 교수)

15:40~16:10	포스터 발표 및 휴식
16:10~17:00	토크 콘서트 : 노래가 있는 이야기 콘서트 진행 : 김정식 (가수, 칼럼리스트)
17:00~17:50	주제토론 2 [전문가 토론] 토론자 : 주영아(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교수), 정일환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하상훈(한국생명의전화 원장), 조정실(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
17:50~18:00	휴식시간

제 3부 18:00 ~ 19:30

사회 : 최 중 숙 (인하대학교 겸임교수)

18:00~18:10	우수포스터 시상
18:10~18:20	임시총회 (회칙 개정, 학술윤리교육 : 박선웅 상벌및윤리위원장)
18:20~18:30	행운권 추첨 및 폐회사
18:30~19:30	저녁만찬 : 허회숙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초청

※ 행운권 : 포스터 발표장에서 발표를 듣고 발표자로부터 수령 가능

2017 춘계학술대회 사회자 소개



주경필
학술위원장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한국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학술위원장이며,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편집위원 및 이사, 한국청소년학회 분과프로그램위원,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고 있다. 서울시 청소년정책마스터플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기타 다양한 여성가족부, 교육부, 노동부 산하 기관의 정책연구 및 평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이라는 문화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성인학습자의 생애발달적 학습경험과 소외 및 저항의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였고, International Society for Cultural-historical Activity Research 회원으로서 활동 중이다. 대한민국 성인도래기 청년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문은식
학회발전기획위원장

충남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교육심리학 전공)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강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 외 2014~15년도 한국인간발달학회 학술이사를 역임하였으며, 2017년 현재 한국영재교육학회 수석부회장,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학회발전기획위원장, 한국교육심리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교육심리학(2판, 공저), 2015, 공동체」, 「진로탐색과 취업전략(공저), 2016, 공동체」, 「심리학개론(공저), 2009, 양서원」 등이 있다. 최근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및 심리적 안녕, 부모교육 및 다문화 학습컨설팅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최중숙
총무이사

인하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교육심리 전공)를 취득하였으며, 인하대학교에서 교육심리, 진로상담, 발달심리학, 동기이론 등을 강의하고 있다. 현재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총무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41년간 초등교육에 재직하였고 창의인성교육과 교육복지, 행복교육에 관심을 갖고 헌신하였다.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의 학업성취과정에 대한 종단연구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였고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여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AASP(2011), ICEM(2015), 한국교육심리학회(2016) 등에서 한국인의 토착심리인 행복과 삶의 질, 존경, 스트레스에 대해 발표하였다. 최근 한국인의 토착심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제 1부

청소년 학교폭력과 자살 [연극공연: 나비]



연극공연 주제 : 청소년극 ‘나비’

1. 목적

- 사회 전반적으로 공공연히 일어나는 청소년 일탈행동의 개선과 예방
- 청소년들의 내적 갈등에 대한 이해와,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복합적인 청소년문제들, 학교폭력의 개선 및 청소년 자살 예방, 또래 간 따돌림 개선 및 예방

2. 시놉시스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던 준호와 우진이는 단순한 친구 사이 이상으로 특별한 죽마고우로써 청소년기를 맞이하게 된다. 항상 같은 학교에 진학하는 동안 형제가 없던 둘은 서로를 형제처럼 의지하며 우정을 이어 나갔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둘의 성향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사춘기에 들어서 우진이 주어진 학업에 충실히 임하는 동안,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던 준호는 조금씩 일탈의 길을 걷게 된다. 우진은 죽마고우였던 준호의 탈선에 친구로서 책임감을 느껴, 설득하고 바른길로 이끌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준호와 관계는 더욱더 멀어 질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진은 하굣길에 불량학생들과 함께 있는 준호를 마주친다. 준호의 마음을 돌리려 하는 과정에서 우진은 불량학생들과 갈등이 생기고, 상황은 건잡을 수 없을 만큼 악화되고 말았다. 그 일을 계기로 둘의 사이는 점점 멀어져 가고, 준호는 괴롭힘을 당하는 우진을 방관하게 된다. 학교성적의 하락, 주변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소중했던 친구관계의 상실은 우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웠다. 결국 우진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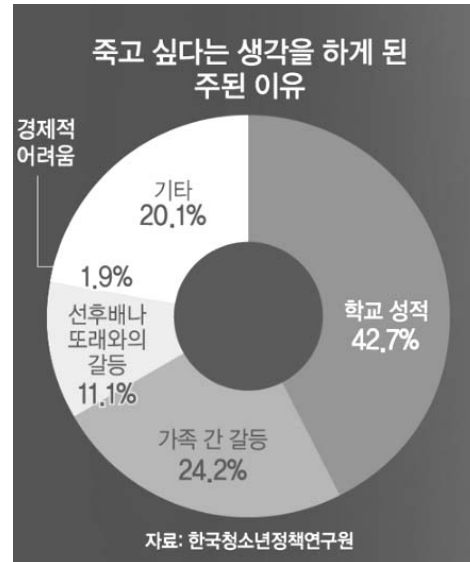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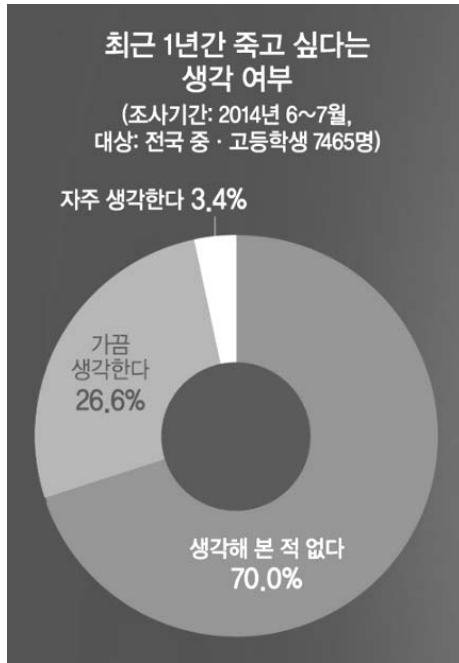


3. 연극공연 극단 : 배우공장

- 극단 배우공장은 2013년에 창립되어 현재까지 정기공연[창작극] 7회, 장편독립영화 2편 등 영화와 연극을 아우르며, 배우훈련과 작품제작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어린이와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극, 아동극 작품들을 필요한 곳에서 공연하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다.
- 배우공장은 연기로 세상을 바꾸어 보자는 일념 하에, 사회와 나라에 도움을 주고, 공동체의 일원들로서 더불어 살아가기를 희망한다.
- 2016년 12월에는 미국 뉴욕 오프브로드웨이에서 ‘독립운동가’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다룬 연극 ‘꽃신’을 공연하여, 많은 국민과 재미동포들의 응원과 격려를 받았다.

기획 의도

1. 공연의 필요성



현대사회에서 청소년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자살예방센터의 청소년 자살 관련 상담 중 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례 35건을 분석한 결과, 10대 학생들은 학교폭력과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 만 아니라 자신이 처한 괴로운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해를 선택하거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회 속에서 격리시키기도 했다.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이 실시한 ‘201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 3명 중 1명꼴로 자살을 생각하며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위에 표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한 이유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수치적인 문제들이 중요하지는 않다. 결국엔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름다운 청소년들이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생각을 약 30%가 해오고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9~24세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놀랍게도 ‘고의적 자해(자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0만명 당 7.8명에 해당하는 수치로 2003년(7.4명)보다 소폭 증가한 것이고, 운수사고(4.4명), 악성신생물(암)(3.1명)로 인한 사망보다 훨씬 높은 놀라운 결과다. 얼마나 우리나라의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다.

2. 공연의 목적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 다양한 예방정책을 추진해왔고, 교육부도 매년 전국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자살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16년7월4일 한국교육신문에서 이우진 교사의 의하면

‘청소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는데도 모두 나서야 한다. 부모와 자녀가 식탁에 마주 앉아 대화를 자주 나눌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근로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자녀교육에 서투른 부모들을 위해 학교나 지자체 등에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부모, 교직원, 관리자, 지역사회 유관단체, 교육청 담당자에게 자살 위험 신호, 자살 위험 대처법, 자살 예방과 관련된 전문교육을 반드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살 예후가 보이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와 관련기관(교육청·학교·청소년상담센터) 간의 긴밀한 연계와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런 관심과 노력들이 사회적으로 모아질 때 청소년 자살률은 크게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청소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그 탓을 청소년들에게 돌리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이 관심을 가질 때 비소로 청소년 문제 해결 방법의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다. 우리의 공연이 청소년에게 초점을 두고 만들었지만,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청소년 뿐 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깨우침을 주고 싶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인지하고,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던 청소년 문제의 대해서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연출 방향

1. 작품 내적 측면

시놉시스

어릴 적부터 친구인 우진과 준호는 같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며 끈끈한 우정을 쌓아갔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아픔이 있던 둘은 상대의 아픔을 달래주고 기대며 서로에게 없어서 안 될 친구가 되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둘은 함께 했고 형제와도 같았다. 그런 둘의 우정은 언제까지나 영원할 것처럼 보였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둘은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홀어머니를 위해 공부에 전념한 우진은 전교1등의 모범생이 되지만, 공부가 마음처럼 안 되던 준호는 우진에게 조금씩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모두에게 인정받는 우진의 모습이 부러웠던 준호는 일탈을 통해 그 욕구를 채워나간다. 준호는 자신의 악행을 칭찬해주는 불량 친구들과 자신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며 점점 일탈에 취해가고 있었다.

우진은 위태로워 보이는 준호를 바로 잡으려 하지만 준호에겐 그런 우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준호의 일탈을 막으려는 우진에게 불량 친구들이 접근하고 우진과 우진의 주변 친구들을 괴롭히기 시작한다. 준호를 막으려는 우진과 그런 우진을 이해 못하는 준호의 갈등은 점점 심해지고 둘의 사이는 점점 더 어긋나게 된다. 성적에 대한 압박감, 주변의 시선, 형제 같던 친구의 외면.. 19살 우진에게 버거운 상황들이 우진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는데...

연출 및 연출 의도

연출 : 김현수 부장

안녕하세요, 이번 청소년극 대본집필과 연출을 맡은 AF엔터테인먼트 부장 김현수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길을 걷다가 환하게 웃고 있는 고등학생들을 보며 저의 학창시절을 떠올려 봤습니다. 갓 서른을 넘었을 뿐인데도 학창시절의 기억이 흐리다는 게 참 가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좋은 추억들도 있었지만 많은 갈등들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고등학교 시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극은 바로 문득 들었던 이런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사회적 외피에 둘러 쌓여있지 않아 날것 그대로의 순수한 감정들을 지닌 청소년들. 하지만 솔직하기 때문에 더욱 예민하고 폭발적인 성향을 띄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점들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주변 친구들의 결함을 건드리기도 하고, 큰 갈등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어야 하는 시기에 단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학창시절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싶었습니다.

또한 이 극은 결국, 청소년기라는 외피를 하고 있지만 실상 현대인들의 인간성 훼손을 고발하고 그들을 힐링시켜주고 싶었습니다. 때문에 자연히 교육정책을 기획하시는 교육공무원들 그리고 누구보다 이들을 보듬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우리 부모님들 까지, 전 대상을 아우를 수 있게 작품을 연출하고자 했습니다.

학생들은 극을 보며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대한민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우리 어른들은 나 또한 한명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였다는 의미 있는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입니다.

등장인물

▶ 이우진

전교 1등에 못하는 것 하나 없는 자타공인 모범생.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선생님들의 사랑도 한 몸에 받는다. 같은 학교인 준호와와는 죽마고우 사이로 형제처럼 지내지만, 요즘 들어 탈선을 일삼는 준호가 위태로워 보인다. 준호를 다시 바로 잡기 위해 고군분투 하지만 그럴수록 둘의 사이는 점점 틀어지게 되고 친구들과의 갈등, 성적에 대한 압박으로 점점 갈 길을 잃게 되는데...

▶ 김준호

공부는 적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평범한 학생. 우진을 형제처럼 아끼지만 모두에게 인정받는 우진의 모습을 보고 약간의 열등감을 느낀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탈선을 통해 충족시키기 시작하고 점점 그곳에 빠져들게 된다. 결국 자신을 말리는 우진 조차 외면하게 된다.

▶ 윤철민

불량서클의 우두머리. 준호를 꼬드겨 악행을 일삼는다. 자신에게 쫓겨난 우진을 괴롭히기 위해 준호와 우진의 사이를 갈라놓는다.

▶ 김소혜

아이들이 꿈인 사차원 소녀. 먹는 것과 아이들을 좋아한다. 소문에 관심이 많아 여기저기에서 소문을 수집하고 다닌다.

▶ 강민혁

잘 하는 것은 없지만 하고 싶은 것은 많은 꿈 많은 소년. 남들이 볼 땐 찌질이지만, 짝사랑하는 소혜 앞에서 만큼은 멋진 남자가 되고 싶다.

2. 작품 외적 측면

우리 공연은 작품 외적으로 극의 웅장함과 하려함보다는 언제 어디서나 남녀노소 불문 누구에게나 상연할 수 있게 심플함을 추구하였습니다. 외적인 화려함 보다 내적인 깊이에 치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극을 만든 목적과 관객 대상들을 고려해보니 특정 대상 층 만 볼 수 있는 공연을 만드는 것 보다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극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수만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많은 우리나라의 사회 구성원들이 이 공연을 보고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극단 ‘배우공장’ 소개

- * 극단 배우공장은 2013년 출범하여 **정기공연**(연극), **청소년극**(나비), **아동극**(알쏭달쏭 이야기보따리) 등 다양한 성격의 공연들을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있다.
- * ‘**연기로 세상을 바꿔보자**’는 일년 하에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교육을 위한 극을, 성인들에게는 우리들의 관심이 필요한 것에 대한 극을 선보이고 있다. 그 동안 대학로를 중심으로 관객이 찾아오는 공연을 진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연극이 필요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공연도 시도하고 있다.
- * 상업극(레퍼런스극, 뮤지컬)이 판을 치고 순수연극은 경쟁에서 도태되어 가며 정극을 하는 극단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현실의 벽 앞에서 예술표현의 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한 힘겨운 몸짓으로 순수연극의 맥을 이어가고 연극예술의 혼을 지켜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다.
- * ‘**꽃신**’ 미국 브로드웨이 진출
2016년 12월 16일~24일 까지 미국 브로드웨이 공연이 진행되며 순수연극으로는 대한민국 연극 20년만의 쾌거이다. 연극 ‘꽃신’은 일제 강점기 독립 운동가들과 위안부들의 삶과 애환을 담은 시대극으로 우리국민들의 아픈 역사를 세계에 알려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할 인륜적 실수임을 인식시키고 방지하려한다. 공연의 수익금은 전액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기부되며 뉴욕에도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지는데 힘을 보태려는 기획의도를 지니고 있다.

2017 춘계학술대회 토론자 소개

주제토론 1



조강현

인천동양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며, 선거활동과 토론회 등의 과정을 통해 2017학년도 전교회장으로 당선되었다. 2016년부터 학교 행사 및 선도부와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동양중학교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찬조기사를 인천의 각 신문사에 제출하고 있다. 학교 안전예방 자살교육 행사를 주간 운영하며 자료를 만들고,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학교폭력과 학교생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지난 해 인천광역시 교육감 표창장을 수상하였다.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바른 학교생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



김미나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심리치료 상담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직업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토착심리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의 인성덕목을 바탕으로 융합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 진행중이다. 현재 융합미술연구소를 개소 준비중에 있다.



이상호

고려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 후 2007년부터 경기도 성남에 소재한 동광중고등학교에서 역사 교과목을 교수하는 중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동광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전담교사를 맡아 학교 폭력예방 계획 수립 및 실행,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에서 사안 처리(교육청 보고, 학부모 상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등) 등을 전담하였다. 특히 가피해 학생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2차 보복행위 등을 방지하고, 그들의 원만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토론글

청소년 학교폭력과 자살 예방에 대한 실천방안 모색

이상호

성남 동광고등학교

청소년의 자살원인을 개인의 성격적 특성과 감정에 의한 개인 심리적 요인으로 찾아볼 수 있겠지만 학교, 가정, 친구관계 등에 영향을 받는 사회 환경적 원인으로도 볼 수 있다. 그 중 또래집단 간에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정신적 어려움을 초래하여 학습 기 부진, 학교생활 부적응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자살의 요인으로 작용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은 어디까지 인정되고 있는가? 교육부 학교폭력 연수 자료에 의하며 침 뱉기, 머리 톡톡치기, 가벼운 욕 등의 사안도 지속, 반복되고 피해학생이 고통을 호소하면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있고 사안이 발생하면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단순 1회성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대처없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의 고통을 받는 학생의 경우에는 우울증의 등의 병증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왕따나 학교폭력 등에 노출된 청소년은 자살의 위험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기의 우울증은 단순히 개인적 문제로 치부할 것이라 아니라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처해야 한다. 또한 가족 중에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자살환경이나 가족정서가 자녀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가정의 구성원은 자살을 문제해결의 유효한 선택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는 자살이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확대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처해야 한다.

결국 학창 시절의 학교폭력은 청소년 시기만의 문제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시기에 대단히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과 학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연계된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정은 삶의 휴식처이자 일차적 상담소의 역할을 한다.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아이가 보이는 행동을 5가지 정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말이 없어지거나 눈을 잘 맞추지 못한다. 둘째,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다. 셋째, 밥을 잘 먹지 못하고 잠도 잘 못 잔다. 넷째,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 다섯째, 학교 가기를 싫어하고 학업 성적이 떨어진다. 이상과 같은 행동이 학생에게 나타나면 더욱 주의깊게 살펴보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 한편 가정에서 해결이 안될 시에는 학교나 유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는 명언처럼 가족이나 지인을 위해 본인이 나서지 않는다면 결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는 자살예방 지침과 별반 다르지 않다. 감기만 걸려도 병원을 찾는데 하물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홀로 겪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학교 선생님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면밀한 관찰을 통해 학생들의 사소한 변화를 놓치지 말아야 하며, 혹시라도 발견된 사소한 문제도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사회 유관 기관도 전문적 상담 및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제 2부

청소년 학교폭력과 자살 [토크 콘서트]



토크 콘서트 : 노래가 있는 이야기 콘서트

김정식 로제

전남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파리음악원에서 교회음악 공부

현재

우리신학연구소 연구위원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편집위원

수상

1978년 제2회 MBC대학가요제에서 자작곡 <약속>으로 은상 수상
1996년 양심수 석방을 위한 시민가요제에서 '열린감옥상' 수상
2000년 한국휴먼네트워크 선정 <생활 속의 신지식인>
2015년 제 32회 가톨릭대상 수상



노래를 통한 삶의 영성을 나누며
새만금 갯벌 살리기 운동, 사형폐지를
위한 노래마당, 심장병 백혈병 환아를
돕기 위한 거리공연, 장애인 단체와
공동체, 교도소, 공부방 등 버림받고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공연활동



김정식 로제 프로필

kimrogerio@hanmail.net / 010-3289-2029

현재 20여개의 생활성가 및 예술음반 발매
해외 100여 차례 국내 5,000여 차례의 초청
일정을 통해 '노래를 통한 삶의 영성' 나눔.

환경운동과 인권회복을 위한 노래공연과
초청강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음.

우리신학연구소 연구위원이며,
가톨릭뉴스-지금여기 편집위원

다음카페 <김정식로제의 노래

<http://cafe.daum.net/rogerio> >라는

팬카페에서 그에 글과 음악을 만날 수 있음.



인문학 콘서트에 관하여

인성교육에 관하여 교육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을 착하게 만들려고 인위적으로 애를 쓰면 쓸수록 사람은 더욱 질이 나빠집니다. 사람을 착하게 만들고 싶다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그 사람을 <기쁘고 자유롭게>해 주면 됩니다. 특별히 종교단체 지도자들에게 권고합니다. 사람을 착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보스톤에 초청강의를 갔다가 세계적인 <범죄심리학자>와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견해에 완전하게 일치를 이룬 내용이 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바뀔 수 없고, 다만 사랑과 감동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며, 그 사랑과 감동이 지속될 수 있다면 오랜 기간이나 어쩌면 영원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뿐, 본질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범죄나 악행은 병으로 간주한다. 일시적인 간단한 병도 있지만, 치유가 몹시 어려운 병도 있고, 난치나 불치병도 있다. 이런 병에 대처하는 다양한 의술처럼 인간 내면의 병으로 간주되는 범죄나 악행에도 ‘치유’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벌써 오래전에 교도소에서의 인성교육이나 교화교육이 사라졌다. 대신 사랑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고, 수용자들은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문화나 예술 혹은 인문학을 통한 치유체험’이 주를 이룬다. 가끔씩 TV 프로그램을 통하여 소개되는 서구사회 교도소의 자유분방한 상황이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는 이유이다.

가르침(교육)이라는 영어 educate의 어원인 라틴어 educare(에듀까레)의 본디 뜻은 ‘집어넣어 주는 것’이 아닌 ‘끄집어내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가르침(교육)이란 일방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집어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내재해 있는 창의력을 비롯한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능력들이 잘 끄집어 나올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틀과 형식이라는 억압기재를 해체 혹은 포기해야 하고, 획일화된 사고나 행동보다는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를 통해 공동체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창의력을 통한 다양한 접근이 요구된다. ‘소통과 연대’의 중요성을 실감나게 해주는 통찰이다.

자유에 관하여 생뎡쥐페리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백화점에 가서 내 돈 내고 내 맘에 드는 물건을 마음대로 골라 살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자유란 그런 것이 아니다. 자유는 ‘가장 자기다운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어부가 물고기를 낚고 있을 때 자유롭고, 조각가가 조각을 하고 있을 때 자유롭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다운 일을 할 때 자유롭다.’

인문학 콘서트를 통해 기대되는 치유체험은 두 가지 면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현상적인 행복체험으로써,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 자신이 실제로 누리는 행복체험이다. 강의 안에 장치된 재치와 유머를 통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강의 시간 내내 마음껏 웃을 수 있기에, 웃음치료 효과와 함께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복감을 만끽할 수 있다. 웃을 때 분비되는 엔돌핀은 모르핀보다 20배나 강한 진통치유효과가 있음을 의학계가 입증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공감을 통한 감동으로 치유체험이 가능하다. 강사가 준비해온 창작예술(대부분 직접 창작한 음악과 글)을 듣거나 함께 함으로써, 공감을 통한 행복체험이다. 21세기에 들어서 의학자들은 엔돌핀보다 4,000배(모르핀의 80,000배)나 강한 진통치유효과가 있는 다이돌핀이 뇌에서 분비된다는 것을 새롭게 알아냈다. 웃을 때 나오는 것으로 잘 알려진 엔돌핀과 비교해서 이 다이돌핀은 감동을 받을 때 나온다. 1. 기가 막히도록 놀라운 풍광을 보았을 때 2.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을 때 3. 엄청난 사랑에 빠졌을 때 4. 지금까지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왔을 때 감동이 오고 이 감동은 다이돌핀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감동이란 자신의 내면이 ‘기쁘고 자유로울 때’ 올 수 있고, 생뚱췌페리의 견해에 공감한다면 ‘가장 나다운 일을 하고 있을 때 자유롭다’. 이런 깨달음의 감동은 치유를 넘어서서 스스로의 정체성 확보로 이어지고, 이후의 삶은 타인에게도 치유의 감동을 나누고 전하는 메신저가 될 수 있다. 내 자신의 치유를 통해 타인의 치유를 도울 수 있기에 이 감동은 무한 리필이 가능하고, 이런 공감과 교감을 나누는 일은 온 세상의 치유를 이루어가는 일이 된다.

가르침(교육)에 대한 이 새롭고도 놀라운 접근이 내면에 깨달음이라는 울림으로 다가올 때 감동이 오고, 이 감동으로 인해 지금까지 그러지 못해 힘들고 어려웠던 자신의 내면이 치유되며, 그 치유는 정체성 확보로 이어져 새로운 행복에너지가 충전될 수 있다.

나마스떼NAMASTE

* 인도 · 네팔 · 티벳 동지에 사는 힌두교인들의 인사말
이 노랫말의 모든 내용이 담겨있는 산스크리트어임.

김정식 곡

나 - 마 스페 - - 오 - 나 - 마 스페 -

1. 안 녕 하 세요 - - 참 - 반 - 가 워 요 -

2. 고 - 마 워요 - - 또 - 다 시 만 나 요 -

3. 행 복 하 세요 - - 라 고 인 사 합 니 다 -

4. 당 신 과 나의 - - 영 혼 은 - 같 아 요 -

나 - 마 스페 - - 오 - 나 - 마 스페 - - . 떤.

1. 어 서 오 세요 - - 행 복 한 웃 음 으 로 - - .

2. 잘 - 가 세요 - - 부 디 건 강 하 세요 - - .

3. 내 - 안 의 신 이 당신 안 의 신 에 게 - - .

4. 당 신 안 의 신 께 경배 드 - 립 니다 - - .

2010.4.21 아름다운 재단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

정겨웁게

김 정식 사·곡



1. 내가
2. 내가



좋 아 하 는 것 막 피 어 난 보 리 꽃 논 두
종 아 하 는 것 시 냇 가 의 조 약 돌 이 름



령 을 수 놓 은 자 운 영 꽃 무 리 아 침
없 는 들 길 에 노 - 란 민 들 레 이 름



이 슬 머 금 은 작 은 - 제 비 꽃 골 짜
아 침 못 가 에 피 는 - 물 안 개 푸 름



기 를 흐 르 는 맑 은 시 냇 물 해 지
하 늘 날 으 는 아 기 종 달 새 해 저



는 서 산 마 루 비 껴 가 는 저 녀 놀 집 으
문 강 나 루 에 살 랑 이 는 술 바 람 노 을



로 돌 아 가 는 아 이 들 의 발 자 국
을 기 다 리 는 물 새 들 의 속 삭 임

WILD FLOWERS

풀꽃 pul KKOT

written by Tae ju-Na

song by JeongSik-Kim

Eve - ry one is beau - ti - ful, when you look close.
Ja - sea hee bo - a - ya ye - ppeu - da
자 세 히 보 아 야 예 뻐 다

Eve - ry one is lo - ve - ly, when you look deep.
O - rae - bo - a - ya Sarang - s - rup - da
오 - 래 보 아 야 사랑 스 럽 다

You are so lo - vely, too -.
Neo - do - g - reot - da -.
너 도 그 령 다.

그 꽃

C G F Dm6 G7 고 은 시
김정식 곡

내 러 갈 때 보 았 네. 보 았 네.

F C G7

올 라 갈 때 못 본 그 꽃 -.

F C G7 C

올 라 갈 때 못 보 았 던 그 꽃

2009. 6.13 R
하룻배이를 떠나오며

행복

보통 빠르기
자유로운 속도로

고 은 시
김정식 곡

D A7 D

저녁 때 돌아 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 속으로 생 각 할 사람이 있 다 는 것

D7 B7 Em A7 D

외 로 울 때 혼 자 서 부 를 노 래 가 있 다 는 - 것

D A7 D

저녁 때 - 돌아갈 집있 다는 것 힘들 때 - 생각할사람이있 다는 것- 외로울

D7 B7 Em A7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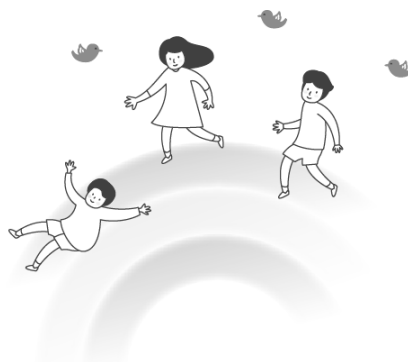
때 - 혼자서부를노래 가 - 노 래 가 있 다 는 것 저녁

A7 D

때 - 돌아갈집있다는 것 힘들 때 - 생각할사람이있 다는 것 - 외로울

D7 B7 Em rit A7 D

때 - 혼 자 서 부 를 노 래 가 - 노 래 가 있 다 는 것



2017 춘계학술대회 토론자 소개

주제토론 2



주영아 교수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상담심리 석사과정을 마치고 계명대학교에서 상담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상담심리학회 학회장과 한국심리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여가부와 국립청소년상담센터 등에서 연구 및 정책자문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문화 및 부적응 청소년, 부부 및 가족상담에 관심을 갖고 상담활동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청소년심리와 상담, 집단상담의 기초 등이 있다. 최근 성소수자 상담, 상담에서의 영성개입, 영성척도 개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정일환 교수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에서 교육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교육정치학회장,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행정연구부장,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파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자문교수(상근),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한국교육학회 부회장, 한국비교교육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글로벌 사회에서 교육의 본질 추구를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한 관점에서 최적의 한국교육정책을 연구·개발·적용하는 교육학자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교육정책론, 교육행정학 탐구, 한국교육정책 현안과 해법, 비교교육학, 미국 학교폭력에 대한 무관용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등이 있다. 최근 지방교육의 활성화와 한국교육의 국제 비교를 위한 연구를 다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하상훈 원장

인하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는 사회복지법인한국생명의전화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 외에도 한국자살예방협회 이사, 생명문화학회 학회장, 한국생활상담협회 부회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으며, 자살위기 개입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자살문제의 해결을 위한 연구와 실천, 생명존중교육운동의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조정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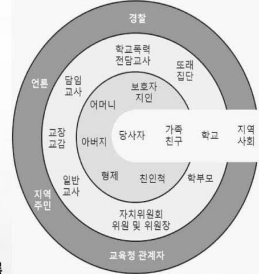
고려대정책대학원에서 사회안전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 및 부설 위탁형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시설 '해맑음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2006년부터 교육부, 경찰청 학교폭력정책자문위원으로 학교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폭력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폭력없는 평화로운 교실 만들기」가 있다. 화해중재를 위한 학교폭력 발생 전후 대처법을 전국을 순회하며 교육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개입방안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주영아

학교폭력의 특징

학교폭력은 주변 또래집단에 영향을 주며, 나아가 이들은 학교폭력 사건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 구조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사건의 당사자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사건에 있어서 다층적인 이해당사자 집단이 직간접적으로 사건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양산하는 복합적 구조를 가지게 된다.



학교폭력의 특징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은 정신적 외상의 경험

학교폭력 사건과 그 해결과정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력한 스트레스를 유발

피해학생 뿐 아니라 문제해결의 실제적 책임을 지고 참여하는 보호자와 가족 구성원에게도 정신적 외상을 남기는 사건으로 발전한다.

갈등해결 패러다임으로서의 회복적 정의와 회복적 사법

갈등해결 패러다임 변화
응보적 사법관점 → 회복적 사법관점으로
김은경(2009)

회복(restoration):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피해의 회복, 가해자가 다시 사회에 재통합하도록 하는 회복,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함

회복적 정의의 특징

- 1) 범죄로 인한 피해의 회복
- 2) 피해의 회복은 가해자와 피해자 등 이해관계자의 자발적인 대화를 통해 달성

회복적 정의는 공동체가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갈등의 종식만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고 근원적으로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여 평화를 정착시키는 갈등전환(conflict transformation)의 구체적 실천적 방법으로서의 역할

회복적 패러다임의 이해

응보적	회복적
범인 확인	사건 이해
가해자 중심 - 존재 비난	피해자 중심 - 영향 확인
유죄 확정 노력	피해 회복 중심
처벌 결정	재발 방지

학교폭력의 개입

회복적 정의 실천목표

첫째, 가해자는 징벌에 따른 낙인효과에서 벗어나 책임을 자각하고 학교 공동체에 통합되도록 선도

둘째, 피해자는 치료 지원을 넘어 피해로 인한 자존감의 상처와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학교에서 또래집단과 정서적 유대 관계를 회복해 학교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다시 생활하는 것의 중요성 강조

회복적 생활교육의 영역

아동과 청소년들이
바른 행동을 선택하고
필요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생활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 회복적 정의의 패러다임
- 회복적 생활교육의 철학 이해
- 갈등해결 및 의사소통 능력 함양
- 공동체의 형성과 지키기, 회복하기
- 협력적 소통을 만드는 서클 진행
- 회복적 질문과 상담
-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모임
- 공동체의 상처 돌보기
- 자기 돌봄 능력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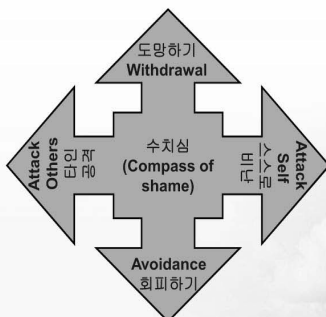
회복적 생활교육의 실천 - 요약

- 깨어진 규칙보다 상처 입은 관계에 우선 초점을 두기
- 당사자 -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자신의 이야기가 들려지는 기회 부여
- 공동으로 참여해 문제를 해결하기
- 상징적 처벌보다는 결과와 영향에 직면하고 책임의 의미를 배우기
- 수치심을 건강하게 통합하도록 하고 변화와 성장 돕기
- 공동체의 상처와 어려움을 바로잡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기

수치심이란?

수치심이란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사랑이나 소속감을 누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극심한 고통을 뜻한다.

수치심에 따른 행동양식



내 삶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수치심은 없다 Dr. Brene Brown

“타인에게 인정받고 스스로에게 만족했을 때 올바른 행동을 하지, 거절당하고 쓸모 없는 존재라고 느끼거나 모욕을 당해서 수치심을 느낄 때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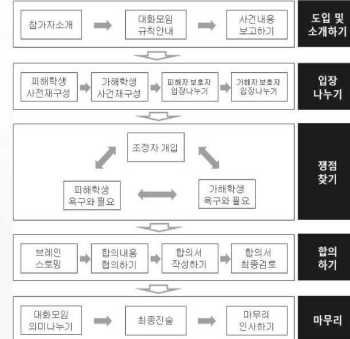
회복적 정의 실천방안

1. 참가자 선정

대화모임의 참가자는 기본적으로 조정자와 당사자 학생, 그리고 보호자로 구성된다.

보호자는 어머니와 아버지이며, 보호자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자 학생만 오거나 부모가 아니어도 친인척이나 당사자 학생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신 대화모임에 참여하여 의견을 내고 구체적 논의에 참여하기도 한다.

2. 진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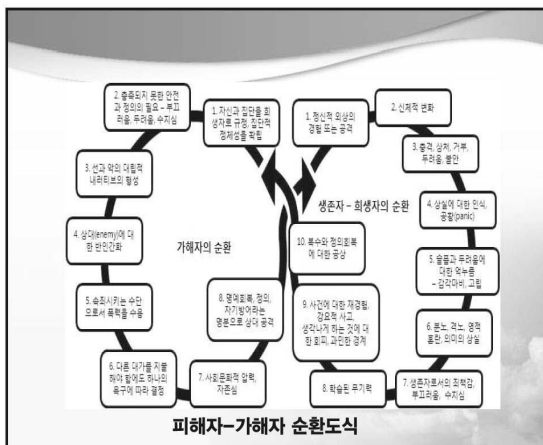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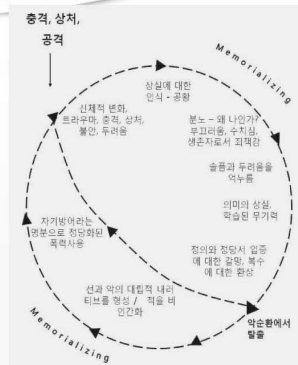


3. 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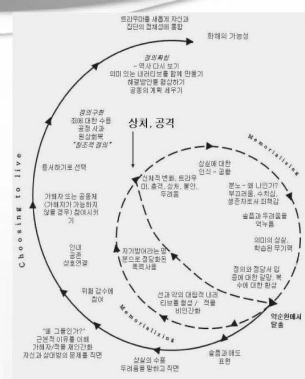
피해자-가해자 되기의 악순환 방지

학교폭력과 그 해결과정의 지속적인 갈등과 대립은 당사자들에게 정신적 외상이 되어 깊은 상처와 충격으로 수용되고 피해자와 가해자는 새로운 피해의 피해자가 되어감, 이러한 충격과 상처는 인간 내면의 심리적 역동을 일으키는 데 올바르게 다루어지지 못할 경우 이는 피해자에서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가해자가 될 수 있고 가해자는 다시 피해자가 되는 피해자와 가해자 되기의 '폭력적 악순환'을 그리게 된다

피해자-가해자 악순환



트라우마 치유의 여정: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재통합적 수치심(reintegrated shame)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의 공동체 안에서 적절하게 수용되고 재통합될 때 가해자의 행동이 부정적으로 강화되는 것을 막고 긍정적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참고문헌

김은경, 이호중(2006). 학교폭력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소년사법 실험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7-467.

서정기(2015). 회복적 정의를 통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발표자료, 에듀피스.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대한 토론요지

정일환

대구가톨릭대학교

I. 논의 배경: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정책배경과 형성과정

□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12. 2.6) 형성 배경

- 최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표한 보고서(2017.2) 중 인구 10만명 중 자살 사망자 수 21.8명(OECD 평균 12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 간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형성된 과정을 관련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함. 이는 한 국가의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 교육의 수장인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지방교육의 수장인 교육감과 교육장, 단위학교의 책임자인 학교장, 단위학급의 책임자인 담임교사(생활지도 담당 교사)의 의지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함을 보여주하고자 함.
- ‘학교폭력’ 개념: 학교 안팎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靑 학교폭력 TF 첫 회의(동아일보 입력 2011-12-28)

청와대는 대구 한 중학생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청와대 대책반(TF)을 구성해 27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대책반은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학원폭력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심각한 단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지시한 데 따라 만들어졌다. 첫 회의에는 정일환 교육비서관을 중심으로 정무, 사회통합, 고용복지 등 3개 수석비서관실 소속 비서관 6, 7명이 참석했으며 향후 수석비서관이 참석하는 회의로 격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응팀도 구성할 예정이다.

■ 靑 주도 학원폭력 근절 범정부 TF 가동(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입력 : 2011.12.28.)

(서울=뉴스1) 서봉대 기자 = 청와대가 학교 친구들 괴롭힘 때문에 목숨을 끊은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정부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에 나섰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지난 27일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첫 회의를 가진데 이어 오는 30일2차 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대책논의에 착수기로 했다.

청와대 TF에는 정일환 교육비서관을 중심으로 민정 2·법무·치안·여성가족·문화체육·국민권익·홍보기획 비서관 등 8명이 참여하게 된다. 정부 부처에서도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검찰·경찰이 함께 하는 실무대책협의

회가 구성됐으며 교과부의 경우 청와대TF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결국 범정부 차원에서 학원폭력 대책이 논의되는 셈이다.

정 비서관은 28일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교과부가 학원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를 실시해왔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범정부 차원의 논의에서는 대책의 실효성 확보에 역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폭력을 줄이기 위해 부처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청와대 TF도해당 비서관실 별 대책논의를 토대로 폭력대책을 총괄·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 대책논의의 큰 방향은 법·제도적인 차원의 점검 및 강화, 교육 문화적 접근, 범정부차원의 유기적 대응 쪽으로 잡혀 있다”며 지난 7월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논의내용을 거론한 뒤 “학부모와 교사간 신뢰형성, 의사소통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비서관은 “한시적으로 운영될 TF 팀이지만 사안의 성격상장기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李대통령, 시·도 교육감 초청 오찬…학교폭력 의견 청취(뉴시스 기사입력 2012-01-06)**

【서울=뉴시스】 장진복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전국 시·도 교육감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간담회를 갖고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간담회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 시·도 교육감들의 의견을 청취하도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학교폭력으로 희생된 학생들과 학부모님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학교폭력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종합대책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임을 약속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을 비롯해 김효재 정무수석, 정진영 민정수석, 노연홍 고용복지수석,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정일환 교육비서관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 **李대통령, 교직원단체·학부모단체 초청 학원폭력간담회(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입력 : 2012.01.27.)**

(서울=뉴스1) 서봉대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오전 주요 교직원단체 및 학부모단체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 학원폭력대책 간담회를 가졌다.

청와대 측은 이날 간담회와 관련, “대통령께서 신년 국정연설에서 학교폭력문제의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히신 이후 개최되는 행사로 교사와 학부모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박계화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회장, 이기봉 국공립중학교장협의회회장,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회장,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회장, 장은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하금열 대통령실장,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정일환 교육비서관, 박정하 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 **전교조, 청와대 학교폭력 대책회의에 불참키로(연합뉴스 기사입력 2012-01-26)**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청와대가 27일 열 예정인 학교폭력 대책 마련을 위한 교직원단체·학부모 대표 초청 간담회에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이 불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이명박 대통령이 교직원단체와 학부모 대표 등 교육주체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실상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회의에는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과 보수·진보 학부모 단체, 교장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

“나도 숨 쉬고 싶다!”

대통령은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대책 시행을 위해서는 전교조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장 위원장이 간담회에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박범훈 교육문화수석과 정일환 교육비서관이 장 위원장을 만나 간담회 참석을 요청했으나, 전교조는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참석하지 못한다’고 통보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학교폭력 문제는 이념을 넘어 교육의 본질에 관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전교조 측이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 손충모 대변인은 “장 위원장이 청와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오늘 중 전교조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李대통령 학교폭력 실태 파악..Wee센터 방문(연합뉴스 기사입력 2012-01-30)**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학교폭력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 방문을 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경기 안양의 ‘Wee 센터’는 2011년에 설립됐으며, 안양·과천 지역의 초·중·고 재학 중이면서 학교 폭력에 노출된 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2천500건의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센터에서 친구들을 돕기 위한 상담활동을 벌이는 ‘또래상담학생’과 학교 폭력 관련 학부모, 상담 전문교사 등을 만나 직접 경험을 듣고 어려움을 극복한 학생을 격려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월6일 청와대에서 시·도 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하고, 같은 달 27일에는 교직원체 및 학부모단체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어 학교 폭력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 **“가해학생 반성문 쓰면 끝… 경찰 개입해야” Wee 센터 방문 이 대통령에 호소(국민일보 입력 : 2012-01-30 21:56)**

학교 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학생들이 대통령에게 그 실태를 낱알이 전하며 대책을 호소했다.

고1여학생은 30일 경기도 안양 ‘Wee 센터’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가해 학생은 반성문 쓰고 벌점 받으면 끝인데 이 것으로 안 된다. 경찰이 개입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처벌이 없어 피해 학생이 2차 폭력에 노출되는 현실을 호소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학부모, 상담교사들과 1시간여를 만났다. 이 센터는 안양 및 과천 지역 초·중·고생 등을 대상으로 연 2500건의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고3인 A군은 “학교 문화가 계급사회 문화로서 일진이 있고 평범한 아이가 있고 소위 말하는 찌따(바보)가 있다”며 “뺑셔틀(뺑 심부름)을 하는 학생들은 잘나가는 애들한테 철저히 착취당하는 사회”라고 말했다. A군은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알려지면 완전히 소외당한다. 선생님께도 알릴 방법이 없고 가해자들의 성격이 난폭해 2차 보복이 가장 두렵다”고 토로했다. B양(고1)은 “친구 중에 누가 왕따를 당해도 도와주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며 “상담을 떳떳하게 받지 못하는 것도 알려지면 찌질이(바보)라고 낙인이 찍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피해를 보고 전학을 갔지만 위장전입이어서 원래 학교로 돌아왔지만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중학교 1학년 사연도 소개됐다. 이 학생의 어머니는 “지금껏 국가는 뭐했는지 원망스럽다”고 울먹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얘기를 들으니 대책이 다 나온 것 같다”며 “우리 사회에 바뀌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학교 폭력만큼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 **이 대통령, 학교장들과 학교폭력 근절 대책 논의(2012. 2.2 청와대, 네이버뉴스)**

청와대서 간담회...16개 시도 교육장·생활지도 장학사도 참석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전국 주요 초·중·고 교장 16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일선 학교현장에서 학생 생활지도를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들과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근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이 대통령은 초·중·고 교장들에게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일선 학교 교원들의 책임, 헌신적인 노력과 실천을 당부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초·중·고 교장과 교장선생님의 학교폭력 근절대책 관련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6일 시·도 교육감 오찬 간담회와 27일 교직원단체 및 학부모단체 대표 간담회, 30일 안양과천 Wee센터를 방문해 갖은 학생·학부모·상담교사와의 간담회에 이은 행사이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학교 현장 및 사회 각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2월 6일 총리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1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16개 시·도 교육청 생활지도 장학사들도 참석해 학교폭력의 실태와 근절방안에 대해 논의를 함께 했다. 청와대에서는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정일환 교육비서관, 최동해 치안비서관, 강한승 법무비서관, 조현수 국민권익비서관, 이철희 홍보기획비서관, 이길호 온라인대변인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 (종합)李 대통령 “올 한해, 학교폭력근절 출발선상 삼자”(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입력 : 2012.02.02.)

(서울=뉴스1) 서봉대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금년 한해를 학교폭력을 없애고자 하는 출발선상이라 하고 관심을 가지면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국 초·중·고 교장 16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강조한 뒤 “저도 (남은) 임기중에 관심을 가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런 문제가 이번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1990년대, 2000년대에도 종합 대책발표라는 게 있었다. 이번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기회를 갖자”며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대책을 발표해야 성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정말 살아있는, 사랑이 있는 정책을 만들어 이혼하려던 사람이 자식을 보고 이혼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됐을 때 대책을 발표하자. 전 국민이 어린아이들의 폭력문제에 대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함께 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년에 어떻게 하든 학교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을 보고 해결책을 (만들자.) 올해 못하면 내년에도 차차 해 줘야 한다”며 “아이들이 얼마나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냐. 어른들이 모르거나 알고도 소홀히 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대통령으로서 자책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력이 아무리 있으면 뭐하겠나. 머릿속에 오만가지 지식을 갖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반문한 뒤 “오만가지 알고 있는 사람이 실천은 안하고...우리 사회 모두가, 기성 사회가 자성하는 계기를 갖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권도 확립 안되고 학부모도 옛날 학부모가 아니고 세상이 변해 여러 열악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교육 분야만 그런 게 아니다”고 지적한 뒤 “열악한 조건이지만 그 조건하에서 길을 열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늘 해오던 10년, 20년된 정책을 갖고 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나도 숨 쉬고 싶다!”

또 “마지막으로 교장선생님들을 뵈었다. 여러 형태로 폭력을 줄이려고 하고 드러내놓고 해결하겠다고 하면서...뉘어서 쉬쉬하고 담임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 교장선생님이 덮어버리는 경우도 있어 말도 못 꺼낸다는 불만도 있다고 하더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간담회와 그동안 시·도교육감, 교직단체 및 학부모단체, 학생·학부모 및 상담교사와의 잇단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오는 6일 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학교장들외에 1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16개 시·도 교육청 생활지도 장학사들도 함께 했다. 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청와대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정일환 교육비서관, 최동해 치안비서관, 강한승 법무비서관, 조현수 국민권익비서관, 이철희 홍보기획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학교폭력 근절 대책 발표] 학교폭력 은폐한 교장·교사 처벌(연합뉴스 입력 : 2012-02-06)

정부가 학교폭력을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학교폭력 근절 7개 실천정책: 직접대책과 근본대책)을 발표했다. 학교폭력을 은폐하는 교장·교사를 처벌하고, 학생 생활지도 강화를 위한 복수담임제를 도입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폭력 가해학생은 즉각 출석이 정지되고, 피해학생은 원할 경우 경찰의 보호를 받게 하는 조항도 담겼다.

그러나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구체적인 내용 대신 원론적인 대책만 강조한 데다 교사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비난이 적지 않다.

정부는 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하는 학교폭력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7대 직·간접 실천대책을 담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학교폭력 근절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에서 “정부는 이번에 못 고치면 앞으로도 못 고친다는 심정으로 끈질기게 땀겨나갈 각오”라며 “이번에야말로 학교폭력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경찰을 학교폭력에 적극 개입시켜 일진회 등 학교폭력 서클을 기필코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책에 따르면 학교장에게는 학교폭력이 일어나 피해학생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가해학생을 즉시 출석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반면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다 적발된 학교장과 교원은 성적 조작 등 중대 비위 수준으로 징계한다.

담임교사는 매학기 1차례 이상 학생과 1대 1 면담하고, 면담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히 학급을 교사 2명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복수담임제’를 올해 중학교, 내년 고등학교에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피해자·신고자를 보복폭행하거나 장애학생을 폭행한 학생은 엄하게 징계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라디오연설을 통해 “사안이 가볍거나 처음일 경우는 선도해야겠지만 그 밖의 경우는 경찰이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이제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대책을 놓고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폭력 대책의 방향성과 내용에 공감한다”면서도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과부가 유기적으로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면서 “교사들의 부담만 늘어날 뿐”이라고 비난했다. 학부모단체 역시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 적용돼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미심쩍다는 반응을 보였다.

■ 年3000억 투입 ‘수백개 대책’ 효과는 “이번에 못 고치면 앞으로도 못 고친다” 학교폭력근절 대책 내놔는데...(입력: 서울신문 2012-02-07)

정부가 6일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12월 20일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발생한 지 1개월 반 만이다. 학생들의 생활 지도를 위해 학급 담임교사가 2명인 복수담임제를 도입하는 데다 교장이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을 곧바로 출석 정지, 유급시킬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학생에게 전학을 권고하는 규정은 사라지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감독에는 경찰이 나서기로 했다. 신고 체계는 '117'로 일원화했다. 게다가 가해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입학사정관제·자기주도학습 전형 등 대학입시와 연계시켜 인성을 측정하는 전형요소로도 반영하도록 했다. 학부모의 강제소환 및 특별교육도 명문화했다.

김항식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주호(왼쪽부터) 교과부 장관, 권재진 법무부 장관, 최광식 문광부 장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학교폭력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김 총리는 학교 폭력에 대해 “이번에 못 고치면 앞으로도 못 고친다는 심정으로 끈질기게 쟁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장이나 교사가 학교 폭력을 은폐할 경우, 성적 조작에 준하는 ‘중대 범죄’로 처벌할 방침이다. 학생·학부모·교사·교장 등 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경찰까지 동원했다.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이고 종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망라한 백화점식 대책이다. 세부 항목만 수백 가지다. 이를 위해 올해 3189억 4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벌보다는 예방을, 규제보다는 학교의 권한과 자율·책임 강화에 힘을 실어 줬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처벌과 감독에만 집중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김항식 총리는 이날 ‘학교 폭력 근절’ 담화를 통해 “학교 폭력을 좌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이번에 못 고치면 앞으로도 못 고친다”는 심정으로 끈질기게 쟁겨 나갈 각오”라고 밝혔다. 이어 “물밑에 감춰진 모든 폭력들을 들춰낼 생각”이라며 “무엇보다 교권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학교 현실을 너무나 몰랐다.”면서 “학교 폭력을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04년 7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세워졌던 학교 폭력 대책의 종합판 격이다. 대부분 한두번 거론됐던 방안이 모두 포함됐지만 더 강경해졌다. 학교 폭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교 폭력이 사회 문제화될 때마다 대책이 나왔다가 흐지부지된 탓이다. 그 사이 학교 폭력 연령은 낮아졌고, 건수는 늘었다. 신체 폭행에서 정서적·언어적 폭력까지 증가, 복잡화·다양화됐다. 학생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 일렬로 줄을 설 수밖에 없었다. 정신적으로 더 황폐화됐다. 학교 폭력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의 사회 적응 문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 폭력이라는 ‘낙인’이 초·중·고교는 졸업 5년 뒤, 고교는 졸업 10년 뒤 삭제되지만 자칫 사회 부적응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초·중·고교생이라는 점도 보다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학교 폭력은 기본적으로 정신건강의 문제이지, 처벌로 다스릴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보살핌이 없는 정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李대통령, 학원 폭력방지 모범학교 방문(뉴시스 기사입력 2012-04-16)**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오후 학원폭력 방지 모범학교인 경기 여주군 여주중학교를 방문해 학부모, 교사 등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달라진 학원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여주 중학교는 문제학생의 신속한 격리 조치, 즉각적인 경찰수사, 학교 측의 치유캠프 운영 등을 통해 학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나도 **숨** 쉬고 싶다!”

이날 행사에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하금열 대통령 실장,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최금락 홍보수석, 정일환 교육비서관, 이길호 온라인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 이 대통령 “퇴임후에도 학교폭력 근절 힘쓸 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3.01.21.)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임기를 마치고 평범한 시민으로서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학교폭력 예방 관계자들을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다음 정부에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인수인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길호 청와대 온라인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행사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2월 6일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 지 1년을 앞둔 시점에 개최됐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를 펴는 일에 많은 논의를 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학교교육의 정상화 역시 국정 의 우선에 놓여 있다”면서 “과거에는 문제가 발생하면 관심이 일었다가 금세 시들해졌지만 제도적으로 사회 문화를 바꾸는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실(2012. 4). 학교폭력 정책연구과제 발주

- 학교폭력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 시행방안 연구(연구책임자 김병찬교수, 연구기간 2012.4-2012.12)

■ 박 대통령, 경찰에 ‘4대 사회악 척결’ 주문(기사입력 연합뉴스 TV 2013-03-14 20:46)

박대통령, 경찰에 ‘4대 사회악 척결’ 주문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4대 사회악에 대한 척결을 정부에 주문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경찰에는 별도의 대처 기구를 마련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안 희 기잡니다.

박 대통령이 제29기 경찰대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경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 리더로서 첫 발을 뗀 졸업생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직접 졸업장과 계급장을 수여하고 졸업생의 부모들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축하에서는 사회 안전이 민생의 가장 기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민 행복에 가장 기초가 되는 요건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국민 안전지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을 4대 사회악으로 꼽으면서 이를 뿌리뽑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데 경찰이 중심에 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 약속을 이뤄나갈 핵심적 역할 우리 경찰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특히 4대 사회악을 근절할 추진 본부와 성폭력 특별 수사대 등 기구를 새로 갖춰 범죄 척결에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치안을 바로잡기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민생과 직결된 사회 안전 문제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는 모습입니다.

II. 일관성 있는, 그리고 교육기관 책임자의 지속적인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 대책 노력

-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2012년부터 실시) 결과 피해 응답률이 2012년 2차(8.5%), 2013년 2차(1.9%), 2014년 2차(1.2%), 2015년 2차(0.9%), 2016년 2차(0.8%)로 매년 줄고 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경향을 보면, 초등학교의 피해가 높은 편(초등학교 1.3%, 중학교 0.5%, 고등학교 0.4%),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34.8%), 집단따돌림(16.9%), 신체 폭행(12.2%), 스토킹(10.9%) 순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이와 같이 학교폭력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는 2012년 2월6일 정부가 마련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정책이 점진적·가시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2011년 12월 당시 전국적으로 사회적·교육적으로 이슈화된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 자살 사건의 발생과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책마련과 시행이 주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에서도 학교폭력을 4대 사회악의 하나로 간주하고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예방과 근절대책을 추진한 정책성과라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사례는 앞서 살펴 본 여주중학교의 예방과 대책과 함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마련의 진원지였던 대구광역시교육청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에서 나타나고 있음. 즉 2015년 전국 평균 0.9%보다 낮은 0.3%로 전국 최저로 나타났으며, 이는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도시라는 오명을 씻고, 행복교육 발상지로서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음.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사제동행 행복시간, 또래상담과 같은 각종 상담활동 강화,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확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환경 구축, 학교폭력 피해자 관련 각종 지원체제 운영 등을 들 수 있음.

참고문헌

- 김병찬(2012). 학교폭력의 종합대책, 서울: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실.
- 서정화·정일환 외(2013). 한국교육정책 현안과 해법, 파주: 교육과학사.
- 정일환(2016.6). 학교교육의 혁신과 교육학의 과제: 대구행복영량교육의 성과와 발전 방향, 2016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발표자료, 199-231.
- 학교폭력 관련 각종 언론보도 자료(2011.12-2013.5).



청소년의 학교폭력과 자살예방을 위한 제언 -생명존중 교육의 관점에서-

하상훈

한국생명의전화

1. 최근 청소년의 학교폭력과 자살은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 사회적인 대책이 나와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게만 느껴진다.

우리는 희망찬 미래를 꿈꾸어야 할 청소년들이 안타깝게도 학교폭력과 자살이라는 어두운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 필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기 통제력을 키우기 위한 생명존중 교육과 효과적인 위기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자는 학교와 가정과 사회에서 생명존중의식 함양을 위해 교육을 하는 것이고, 후자는 학교폭력과 자살위험에 처해 있는 학생들에게 신속히 개입해서 위기를 벗어나게 해 주는 것이다.

2.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교폭력과 자살문제가 심각해 진 것은 생명존중의식이 낮은 것이 그 원인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입시 위주의 경쟁적 교육 풍토로 인해 부적응적인 학생들이 많이 발생하고 학생, 교사, 학교 사이의 단절로 교육의 생명력이 약해졌다. 우리 교육의 위기는 ‘함께 상생하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많은 부분 지나친 ‘이기기 위한 경쟁적 상황’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박기완, 2011). 그러므로 생명존중 교육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을 갖게 하여 상호 존중하는 교육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학교는 살아있는 하나의 유기체요, 생명공동체이다. 따라서 비인격적이고 경쟁적인 반생명적 교육 분위기에서 벗어나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관을 확립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3. 여러 연구에서 생명존중 교육이 매우 적응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생명존중 교육이 학생의 죽음불안, 자살위험성 및 생명존중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송미경, 2012)도 있고, 또한 여러 연구에서 생명존중 교육은 청소년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생명존중 의식을 높이며, 자살태도가 긍정적인 태도로 바뀌고,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적응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심민정, 2007; 박기완, 2011; 김가령, 2013 등). 그러므로 생명존중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생명존중의식을 함양함으로써 학교폭력과 자살을 예방하고 적응력을 키우게 된다고 할 수 있다.

4. 생명존중 교육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과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함께 기울어져야 한다.

범위	목표	실천 활동	결과
학교	생명존중 의식함양	· 생명의 절대적 존엄성에 대한 교육 · 삶의 의미와 목적 찾기 · 죽음에의 대비교육(death education) · 생명의 상호 연계성 교육 · 도움 찾기 훈련(help-seeking program)	청소년의 학교폭력 및 자살예방
가정	가족기능 회복	· 가족 간의 효과적인 대화 기술 훈련 ·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교육 · 가족구성원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교육 · 상호존중과 정서적 지지 교육	
사회	생명존중 문화조성	· 교육 : 생명존중 민주시민 시민교육 · 언론 : 반생명적 보도 지향 및 방송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 및 생명존중 교육 · 종교 : 생명존중 신앙관 및 세계관 내면화 (설교, 강론, 설법, 교육 등의 방법) · 문화 : 문학, 예술, 행사 등 다양한 매체활용	

5.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생명존중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을 해야 한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설정해 놓은 기대에 더 빨리 이르도록 쫓기고 있고, 그 중압감이 학교폭력과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 생명존중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자기 통제력을 높여 줄 수 있다. 자기 통제력은 이상, 가치, 도덕, 사회적 기대 혹은 장기적인 목표 등의 기준에 맞추어 자기 자신의 반응을 바꾸어서 적응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줄 수 있다.

학교폭력은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이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I. 학교폭력의 실제

학교폭력은 빈도 및 강도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등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학교폭력의 피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은 학교생활 뿐 아니라 자살 등의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파장을 주는 동시에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교폭력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킨다.

정신의학 전문가들은 인간이 겪는 질병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질병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꼽는다. 그리고 자살을 유형 가운데서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투신자살은 삶의 의지가 거의 없는 가장 절망적인 상태일 때 택하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자살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다 삶을 포기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투신자살을 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학교폭력의 피해는 피해학생의 고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고통으로까지 확대된다. 특히 피해학생이 부모에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문제 수습 과정에서 가족 간의 갈등이 야기되며 심한 경우 가정해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발전되기도 한다.

II. 학교폭력 대처방안의 문제점

학교폭력은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별다른 이유 없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학교폭력은 마치 수업처럼 학교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다. 이렇듯 학교생활의 일부가 된 학교폭력이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일어날지는 예측할 수 없다.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학생은 여러 형태로 부모나 형제, 교사나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암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된다. 때로는 폭력의 고통으로 인해 두통이나 복통을 호소하지만, 병원에서는 병명이 없다는 진단과 함께 진통제 처방을 한다.

그 결과 피해학생은 오랫동안 자신의 피해 사실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못한 채 괴로워하며 점차 폭력에 저항할 힘을 잃어 간다. 그러다 자신은 또래와 가족에게서 버림받았다고 느끼면서 외톨이로 지내게 된다. 이렇듯 가족이나 친구에게서 멀어지면서 심리적으로 우울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에 분노감을 느끼지만, 이러한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여 자신에 대한 파괴적 행동인 자살 시도나 자해 행동을 하기도 한다. 많은 피해학생은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자신과 세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대인관계에서도 지나친 의심과 피해의식을 갖게 된다.

가해학생은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면, 심각한 수준의 의식왜곡을 일으켜 대부분 자기 정당화를 위해 피해학생의 행동을 탓하거나 잘못을 지적한다. 적절하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방법을 배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성인이 되어 더 큰 범죄행동을 저지르거나,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

실례로 친구를 집단으로 괴롭힌 후 그 친구가 자살하자, 피해학생 부모가 용서를 했음에도 10년이 지나서 그 죄책감 때문에 결국 자신도 자살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화해중재자가 적절하게 개입하여 자신의 행동에 합당한 처벌과 자신의 삶에 대해 성숙하게 책임지는 방법을 배우게 했더라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Ⅲ. 사회 변화의 실패적 요인

청소년에 관대한 우리 사회, 이중 하나가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다. 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한 가정이 붕괴되는 잔혹한 범죄이건만 가해학생이 어린 학생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이 선도 조치를 취한다.

이는 미성숙 시기의 실수가 낙인이 되어 범죄자의 길을 들어설까 하는 염려로 사회적인 문제, 가정교육의 문제,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행위라고 변명거리를 제공하며 반성의 기회마저 박탈하고 재범, 3범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런 운정주의는 결국 학교폭력을 근절하는데 걸림돌이 되며 피해학생이나 주변 친구들에게 학교폭력 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을 주게 되며 학교폭력 피해자 역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보다 약한 학생들을 괴롭히는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로 이어지게 된다.

가해자들은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오히려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학교생활을 하는 데 반해, 피해자들은 신체적으로 입은 피해의 후유증과 치료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온 가족이 자살을 하는 사건도 발생하기도 한다.

Ⅳ. 학교폭력의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

2011년 12월 20일, 대구에서 중학생 권승민 군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이 일어났다. 부모님 두 분 모두 선생님이었던 승민이의 죽음 이후, 우리 사회는 학교폭력에 꽤나 민감해졌고, 이전과 다르게 각계각층에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표면적인 변화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전보다는 우리사회가 많이 성숙하지 않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피해학생과 피해가족 입장에서 이전과 달라진 점은 ‘학교폭력이 조금 더 주목받는 뉴스거리가 된’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학교폭력 관련 뉴스가 이전보다 조금 많이, 조금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을 뿐, 그것에 대처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는 조금도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학교폭력 피해의 심각성이 수시로 보도되고 있고, 오늘도 학교폭력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이 삶을 포기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에서 학교폭력은 그저 ‘안타까운 뉴스’에 그치고 있다.

‘학교폭력은 범죄다’고 말들을 하지만, 우리 사회가, 교육당국이 과연 학교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학교나 법정에서의 사고 조치가 심각한 범죄를 단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안이한 대책과 처벌은 학교폭력 사고가 벌어지는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장기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제 학교폭력은 교육문제 차원을 넘어, 단순히 학교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 일어나는 청소년기 시절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가족을 떠나게 만드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로 다뤄야 한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과 가족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행복을 위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사회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다양한 방법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포스터 발표 논문



사립유치원장의 감성적 리더십, 교사의 정서지능, 교사효능감 및 직무만족 간의 관계 연구

조정대
인하대학교
schubacho@gmail.com

초록

이 연구에서는 사립유치원장의 감성적 리더십, 교사의 정서지능, 교사효능감 및 직무만족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 사립유치원장의 감성적 리더십이 교사의 직무만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교사의 정서지능 및 교사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는데,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유치원장의 감성적 리더십, 교사의 정서지능, 교사효능감 및 직무만족 간의 구조적 관계를 설명하는 가설적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고 변인들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공분산구조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공분산구조방정식 모형에 따른 최종모형의 구조적 관계 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립유치원장의 감성적 리더십은 교사의 정서지능과 교사효능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교사의 정서지능과 교사효능감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립유치원장의 감성적 리더십은 직무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교사의 정서지능과 교사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사립유치원장의 감성적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교사의 정서지능과 교사효능감이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교사의 정서지능보다는 교사효능감의 매개역할이 더욱 큰 것을 알 수 있다.

■ 주제어: 감성적 리더십, 정서지능, 교사효능감, 직무만족

연구목적

이 연구는 사립유치원장의 감성적 리더십, 교사의 정서지능, 교사효능감 및 직무만족 간의 상관관계, 영향관계 및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사립유치원장의 감성적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교사의 정서지능 및 교사효능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도에 있는 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성별, 직위, 경력 분포를 고려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여, 총 476부를 최종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Statistics 18.0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었다.

연구결과

첫째, 사립유치원 원장의 감성적 리더십, 유치원 교사의 정서지능, 교사효능감 및 직무만족 간의 구조적 관계를 설명하는 가설적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고 변인들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공분산구조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공분산구조방정식 모형에 따른 최종모형의 구조적 관계 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립유치원 원장의 감성적 리더십은 교사의 정서지능과 교사효능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교사의 정서지능과 교사효능감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립유치원 원장의 감성적 리더십은 교사의 직무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교사의 정서지능과 교사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사립유치원 원장의 감성적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교사의 정서지능과 교사효능감이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교사의 정서지능보다는 교사효능감의 매개역할이 더욱 큰 것을 알 수 있다.

논의 및 결론

사립유치원장의 감성적 리더십은 교사의 정서지능과 교사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교사의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친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사립유치원 경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사립유치원장의 리더십이 교사 변인과 더불어 영향력이 매우 큰 변인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사립유치원의 최고 결정권자인 원장의 리더십은 유치원 조직에서 교육활동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으로서 교육목표의 달성과 유치원 조직의 효과성 그리고 직무만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오늘날의 유치원은 사회 및 경제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 학부모들의 기대와 요구의 증가, 자율성의 증대 등으로 인해 유치원 발전을 추구하고 미래에 대한 교육적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의 역할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사립유치원 원장의 지도성은 교사들의 직무만족, 조직적응, 직무성과, 조직몰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사립유치원 교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여교사들의 감성을 고려하는 감성적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장은 새로운 감성적 리더십을 발휘하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사립유치원장이 감성적 리더십을 실행함에 있어서 교사의 정서지능과 교사효능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정서지능과 교사효능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교사와 유아 간의 정서적 교류가 매우 중요한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교사 자신과 유아의 정서를 평가하고 표현할 줄 아는 능력, 교사 자신과 유아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교사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한 정서를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유치원 교사의 교수행위는 유아의 학습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교사로서 자신의 노력을 통해 가치 있는 결과를 획득할 수 있다고 믿는 효능감은 유아교육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따라서 교사 자신이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동기화시킬 수 있는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립유치원장의 감성적 리더십이 교사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교사의 정서지능과 교사효능감은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유치원 현장에서 교사의 정서지능과 교사효능감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제도적 방안의 수립과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며, 사립유치원 원장의 리더십 육성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유치원 교사의 정서지능과 교사효능감 향상을 도모하는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경석, 송란호(2012). 학교장의 감성적 리더십, LMX, TMX, CMX 및 학교조직효과성 간의 관계. *교육행정학연구*, 30(1), 471-498.
- 김현진, 김상돈(2009). 학교장의 거래, 변혁, 감성적 지도성과 학교조직 효과성과의 관계 구조적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7(1), 253-279.
- 서현, 송선화(2010). 유아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감성리더십과 조직효과성과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30(4), 145-169.
- 홍자영(2015). 어린이집 원장의 감성 리더십, 교사의 감성지능, 교사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 간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 대학원.

초등학교에서의 분산적 리더십이 교사학습공동체와 교사수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김 현

중흥초등학교

lyhyuny@hanmail.net

초록

이 연구는 초등학교에서의 분산적 리더십, 교사학습공동체, 교사수업활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 분산적 리더십이 교사수업활동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교사학습공동체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공분산구조분석(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SA)을 실시하였는데,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에서의 분산적 리더십, 교사학습공동체, 교사수업활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설명하는 가설적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고 변인들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공분산구조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공분산구조방정식 모형에 따른 최종모형의 구조적 관계 분석 결과에 의하면, 분산적 리더십은 교사학습공동체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수업활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등학교에서의 분산적 리더십은 교사수업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교사학습공동체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분산적 리더십이 교사수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교사학습공동체가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분산적 리더십을 실행함에 있어서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주제어: 분산적 리더십, 교사학습공동체, 교사수업활동

연구목적

이 연구는 분산적 리더십, 교사학습공동체, 교사수업활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분산적 리더십이 교사수업활동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교사학습공동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이 연구의 대상은 인천, 경기의 초등학교 교사이며 각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성별(남교사, 여교사), 직위(부장교사, 일반교사), 경력(5년 이하, 6-10년, 11-20년, 21년 이상) 분포를 고려하여 표집하였다. 80개교를 대상으로 각 학교당 8-10부씩 총 7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74개교에서 회수된 설문지 696부 중에서 결측치가 발견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83부를 제외한 총 613부(82%)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Statistics 18.0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연구대상자 전체에 대한 분산적 리더십, 교사학습공동체, 교사수업활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설명하는 가설적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고 변인들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공분산구조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공분산구조방정식 모형에 따른 최종모형의 구조적 관계 분석 결과에 의하면, 연구대상자 전체에 대한

분산적 리더십은 교사학습공동체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수업활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분산적 리더십이 교사수업활동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대상자 전체에 대한 분산적 리더십은 교사수업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교사학습공동체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산적 리더십이 교사학습공동체를 매개로 하여 교사수업활동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직접효과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트스트래핑으로 분산적 리더십이 교사학습공동체를 매개로 하여 교사수업활동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분산적 리더십이 교사수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교사학습공동체는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논의 및 결론

첫째, 분산적 리더십이 교사학습공동체를 매개로 하여 교사수업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분산적 리더십이 교사수업활동의 효과를 높여 학교 교육활동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분산적 리더십은 학교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조직에 확산시키고 상호 협동적 활동을 통하여, 학교의 교육적 역량과 교사 개인의 전문성 신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복잡 다원화 되는 사회의 변화 속에서 학교장 중심 리더십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분산적 리더십을 적용하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분산적 리더십이 교사수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교사학습공동체가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학교 현장에서 분산적 리더십을 실행함에 있어서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핵심을 이루는 교사들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교사학습공동체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문성 향상에만 초점을 맞추어 교사들의 기대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사학습공동체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학교개혁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교사의 수업활동을 위하여 교사학습공동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학습공동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련된 제도적 방안의 수립과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며, 학교 조직 구성원들의 리더십 분산 및 확대와 함께 교사학습공동체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교육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경석, 박찬(2013). 학교조직에서의 분산적 리더십과 교사 효능감 및 학습조직화 간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61(2), 309-337.
- 김혁동(2013). 학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학습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동료교사 간 신뢰와 임파워먼트의 매개역할 중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예진(2015). 초등학교 교사가 인식한 교사학습공동체, 지식 공유, 직무 수행 간의 구조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호(2011). 전문가 학습공동체 구축을 위한 교장의 역할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29(3), 195-221.
- 주영호, 김규태(2009). 분산적 지도성의 이론적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27(2), 25-54.

초등학교 교사가 인식한 학교장의 진성 리더십, 학교장-교사 교환관계, 교사의 팔로워십 및 교직원신 간의 관계

이봉재

하성초등학교

dancerocker@korea.kr

초록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가 인식한 학교장의 진성 리더십, 학교장-교사 교환관계, 교사의 팔로워십 및 교직원신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초등학교 교사의 진성 리더십이 교사의 교직원신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학교장-교사 교환관계, 교사의 팔로워십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교사가 인식한 학교장의 진성 리더십, 학교장-교사 교환관계, 교사의 팔로워십 및 교직원신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설적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고 변인들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공분산구조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공분산구조방정식 모형에 따른 최종모형의 구조적 관계 분석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교 교사가 인식한 학교장의 진성 리더십은 학교장-교사 교환관계, 교사의 팔로워십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교사의 팔로워십은 교직원신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장의 진성 리더십은 교직원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학교장-교사 교환관계, 교사의 팔로워십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초등학교 교사가 인식한 학교장의 진성 리더십이 교직원신에 영향을 미치며 학교장-교사 교환관계와 교사의 팔로워십은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학교장-교사 교환관계보다는 교사의 팔로워십의 매개역할이 더욱 큰 것을 알 수 있다.

■ 주제어: 진성 리더십, 학교장-교사 교환관계, 팔로워십, 교직원신

연구목적

이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가 인식한 학교장의 진성 리더십, 학교장-교사 교환관계, 교사의 팔로워십 및 교직원신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진성 리더십이 교직원신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학교장-교사 교환관계, 교사의 팔로워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이 연구의 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의 초등학교 교사이며 각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성별(남교사, 여교사), 직위(부장교사, 일반교사), 경력(5년 이하, 6-10년, 11-20년, 21년 이상), 학교규모별(18학급 미만, 18-35학급, 36학급 이상) 분포를 고려하여 표집하였다. 55개 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설문지 764부 중에서 결측치가 발견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부를 제외한 총 646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Statistics 18.0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초등학교 교사가 인식한 학교장의 진성 리더십, 학교장-교사 교환관계, 교사의 팔로워십 및 교직원신 간의 구조적 관계를 설명하는 가설적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고 변인들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공분산구조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공분산구조방정식 모형에 따른 최종모형의 구조적 관계 분석 결과에 의하

면, 학교장의 진성 리더십은 학교장-교사 교환관계, 교사의 팔로워십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교사의 팔로워십은 교직원헌신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등학교 교사가 인식한 학교장의 진성 리더십은 교직원헌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학교장-교사의 교환관계, 팔로워십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학교장의 진성 리더십이 교직원헌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교장-교사의 교환관계, 교사의 팔로워십이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장-교사의 교환관계, 교사의 팔로워십의 매개효과에서 교사의 팔로워십의 매개효과가 더욱 큰 것을 알 수 있다.

논의 및 결론

첫째, 학교장의 진성 리더십, 학교장-교사 교환관계, 교사의 팔로워십 및 교직원헌신 간의 구조적 관계를 설명하는 가설적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고 변인들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공분산구조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공분산구조방정식 모형에 따른 최종모형의 구조적 관계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학교장의 진성 리더십은 학교장-교사 교환관계, 교사의 팔로워십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교사의 팔로워십은 교직원헌신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장의 진성 리더십은 교직원헌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학교장-교사의 교환관계, 교사의 팔로워십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학교장의 진성 리더십이 교직원헌신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교장-교사의 교환관계, 교사의 팔로워십이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장-교사의 교환관계, 교사의 팔로워십의 매개효과에서 교사의 팔로워십의 매개효과가 더욱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장의 리더십은 초등학교에서 교육활동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으로서 교육목표의 달성과 학교 조직의 효과성 그리고 교직원헌신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장은 진성 리더십을 발휘하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만족하고 교직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학생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학생들의 문제해결에 많은 시간을 기울이는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장은 진성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경석, 송란호(2012). 학교장의 감성적 리더십, LMX, TMX, CMX 및 학교조직효과성 간의 관계. 교육행정학 연구, 30(1), 471-498.
- 류근하(2013). 학교장의 오센틱 리더십, 학교조직문화, 교사효능감 및 교직원헌신 변인간의 구조적 관계. 송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란(2014).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과 학교조직효과성 간의 관계에서 교사 팔로워십과 교사 컬리그십의 매개효과. 인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만덕(2012). 초등학교장의 감성리더십이 리더-구성원 교환관계(LMX)를 매개로 교사헌신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대학생들의 아동기 언어적 학대경험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 평가 두려움을 매개로

The Effects of Verbal Abuse in Childhood upon Social Anxiety of College Students and the Mediating Role of Evaluation Fears

조무자, 주영아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juyou61@kcgu.ac.kr

초록

본 연구는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의 아동기에 경험한 언어적 학대와 성인기 사회불안 사이의 관계에서 평가 두려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려는 것이다. 온라인 질문지 방식으로 30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언어적 학대, 사회불안, 평가 두려움 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언어적 학대가 사회불안에 이르는데 평가 두려움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아동기 언어적 학대 경험으로 평가 두려움이 나타나고, 이를 통해 사회불안으로 이어진다는 인과적 설명이 가능함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사회불안을 호소하는 내담자들에게 학대경험에 대한 평가 및 진단의 필요성과 평가 두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상담적 개입의 효과를 밝혔는데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겠다.

연구목적

사회불안성향을 보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아동기에 정서적(욕설, 모욕, 비방, 비신체적공격) 학대에 더 많이 노출되며(Alden, Melling, Taylor, & Laposa, J. M. 2004), 언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우울, 불안, 심한 위축 등과 같은 내현화 문제(Allen & Tarnowski, 1989)와 공격성, 비행, 품행장애 등의 외현화 문제(Dodge, Pettit, Bares, & Valente, 1995), 낮은 자존감 및 부정적인 자아개념(김아다미, 2001; 김양미, 2000)을 나타낸다. 사회불안이 심한 사람들은 타인의 무능력 평가, 사회적 능력의 저평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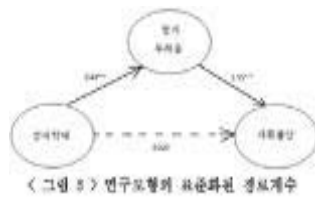
두려워하기에 익숙하지 않은 과제를 수행하거나, 낮은 타인과 상호작용의 상황을 피하게 된다(김민선, 서영석, 2009b). 회피는 사회불안의 주된 증상 중 하나이며,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상황을 회피함으로써 불안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불안의 완화느낌은 보상으로 작용하고, 보상이 따르는 행동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Debra, Richard, Cynthia, 2014). 회피행동은 사회적인 기술 습득 및 상호작용을 어렵게 하며 사회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이소연, 오인수, 2015; 조용래, 2006). 대학생들은 대인관계나 사회적 상황에서 아동 및 청소년에 비해 자기주장 및 사회적 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구받는다(강석기, 고수현, 한상훈, 2011). 이 시기의 회피행동은 발표 및 구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사회 적응을 어렵게 만든다(이소연, 오인수 2015). 이에 본 연구는 평가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사회불안의 근원이 아동기의 언어적 학대에 기인하는지를 묻고 있다.

연구방법

온라인 질문지 방식으로 대학 3, 4학년 30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측정도구로 사회불안, 언어적 학대, 평가 두려움을 SPSS 21로 자료 분석을 하였다. 단일 차원인 언어적 학대, 평가 두려움의 문항 꾸러미를 제작하였으며, 변인들의 기술통계 확인을 위해 평균, 표준편차, 첨도, 왜도를 산출하는 한편으로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변인들의 관계를 가정한 모형을 설정하고, AMOS 21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과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부트스트랩 절차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언어적 학대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의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평가 두려움이 언어적 학대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경로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의 언어적 학대 경험으로 평가 두려움이 나타나며, 이것이 사회불안으로 이어진다는 인과적 설명이 가능하다.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 졸업예정자들은 취업에 대한 기대감이나 불안감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으나 아동기에 언어적 학대를 많이 경험할수록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지는 동시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도 높아 실수에 대한 염려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민감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런 결과는 평가 두려움이 높은 사람은 완벽하게 보이고 싶은 욕구보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행동적 또는 언어적으로 은폐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며, 이로 인해 사회불안이 유발될 수 있다(Rapee & Abbott, 2007; Heimberg, 1997)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안문희(2008)의 비합리적 양육태도와 정서 중심 대처 방식이 언어적 학대를 매개한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하며, 중요한 시기(감수성기)에 언어적 학대를 경험할 경우 사회성과 언어발달이 저하되고 쉽게 불안감과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Teicher (2011)의 연구결과도 부분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언어적 학대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고 정서적 학대라는 큰 범주 속에서 언어와 방임, 정서적인 부분을

아우르는 선행연구만이 있을 뿐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언어적 학대의 영향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주요한 매개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서적 학대라는 큰 범주에서는 부각되지 않았던 언어적 학대의 중요성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또한, 임상적 측면에서 본 연구결과는 아동기에 언어적 학대를 경험한 사회 불안증 내담자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키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될 것임을 나타내는 동시에 언어적 학대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현시대의 상황에 맞는 언어 학대질문지와 관련 척도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참고문헌 :

- 장정보 (2007). 대학생들의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과 우울 수준간-의 관계에서.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지수 (2015). 아동기 외상 경험이 대학생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 초기부적응도식의 매개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lden.L. E., Mellings, T. M. B., Taylor, C.T., & Laposa, J. M. (2004). Social development experiences in generalized social phobia. Manuscript in preparation(Wright, 2006).
- Teicher MH, Andersen SL, Polcari A, et al (2002). Developmental neurobiology of childhood stress and trauma PsychiatrClin North Am 25(2), 397-426.

‘Identity’ 기반 역량 교육이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시사

신은섭
인천발산초등학교
myangelshin@daum.net

초록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쟁점 확인 및 연구학교 운영 보고서 분석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고민하면서 아이덴티티를 확립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원한다는 문제 의식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재해석한 아이덴티티 기반 교육과정을 제시하며 역량을 직업교육으로 해석한 기존의 협의적 관점을 역량의 상황 맥락적 실천성, 역량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총체성, 삶의 궤적으로서의 역량이라는 광의적 관점을 통해 아이덴티티 기반 교육과정의 원리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재해석 관점을 가지고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설계모형의 원리로 넓은 의미의 진로교육과정, 비인지적 역량 중심 교육과정, 총체적 관점의 교육과정, 개인화(personalization) 중심의 교육과정, 다양한 관리체제의 인정 교육과정, 학습공동체 중심의 교육과정, 학교공동체 문화 확립, 자유학기제 시행의 시기와 시점의 자율성을 제시하였다.

앞으로의 교육은 역량기반교육을 중심으로 총체적인 관점에서 진행될 것이기에 학생들은 자아인식을 바탕으로 공동체 속에서 타인과의 공유와 협력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진로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육과정 메타포로서의 삶의 궤적으로 바라본 아이덴티티 기반 교육과정은 ‘나’와 ‘너’가 함께 하는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게 되고 이로써 무한 상생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보여 준다.

주제어: 역량기반 교육과정, 자유학기제, 아이덴티티, 총체성, 상황성, 실천공동체

연구목적

이 연구는 역량은 어떻게 아이덴티티로 재개념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역량과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의미를 더욱 확장하여 재해석한 후 자유학기제가 보다 본연의 목적에 맞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삶의 궤적으로서의 아이덴티티 기반 교육과정 모형의 원리에 관하여 탐색하였다.

연구방법

삶의 궤적으로서의 ‘아이덴티티’ 기반 교육과정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러한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상황적 실천성에 근거한 총체성과 학습공동체 중심으로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재해석한 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더욱 풍요로운 교육과정이 되기 위한 다양한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록 연구의 분석으로 자유학기제를 살펴보고 있지만 연구의 초점은 역량기반 교육과정이며 이를 적용하여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에 아이덴티티 기반 교육과정의 원리를 견주어서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과의 면담과 질문지를 통하여 아이덴티티 기반 교육과정의 원리에 대한 검증 형태의 의견을 모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아이덴티티 기반 역량 교육과정이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에 줄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하여 탐색하고 이를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얻어진 결과에 대한 요약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궤적 중심의 넓은 의미의 진로교육과정 운영 혁신이다. 직업인으로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 중심의 직업체험교육 위주보다는 내가 어떠한 존재이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쿨레레의 근본 물음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 중심'의 아이덴티티를 기반으로 하는 진로교육이 자유학기제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비인지적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 혁신이다. 국가 교육과정 속에서 비인지적 역량과 인지적 역량이 잘 조화된 핵심역량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정의하고 이해해야만 생애적인 관점에서 비인지적 역량과 인지적 역량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총체적 관점의 교육과정 운영 혁신이다. 지식과 경험의 통합을 강조하는 교육과정 수립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학습자는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형태의 학습경험을 각기 분절된 상태로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험들을 유기적으로 관련지어 조화롭게 구성하여 결국 전체적으로 통합해 나간다.

넷째, 인격적 개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혁신이다. 개인화가 중심이 되어 학습의 주도권이 학습자 자신에게 주어지고, 교사는 학습자의 속성을 파악하여 개별 학생의 요구에 맞춤형하는 개인화 중심 교육이 아이덴티티 기반 역량 교육과정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습공동체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혁신이다. 자율성에 근거한 학습공동체 중심 교육과정은 학생의 실천역량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단위학교 전체의 아이덴티티도 형성하게 된다. 결국 학습공동체는 학생과 학생, 학습공동체와 학습공동체 간의 협력을 통한 개별 학생의 총체적 역량 신장 기제로서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보여 준다.

여섯째, 다양한 관리체제의 인정 교육과정 운영 혁신이다. 정규학교체제와 연계하여 학습자의 능력을 평가하고 인증하여, 학교 안 학습과 학교 밖 학습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학교 밖에서 획득한 능력과 경험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는 평생학습 차원의 관리체제가 요구된다.

논의 및 결론

이제까지 진로교육이 직업교육 방식으로 이루어져 온 터라 학생과 학부모 모두 학생들의 행복과 꿈 끼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 중심의 아이덴티티 기반 교육 과정이 다소 생소하고 심지어 불필요하게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교육은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총체적인 관점에서 진행될 것이기에 학생들은 자아인식을 바탕으로 공동체 속에서 타인과의 공유와 협력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진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육과정 메타포로서의 삶의 궤적으로 바라본 아이덴티티 기반 교육과정이 '나'와 '너'가 함께하는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게 되고, 이로써 무한 상생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 박삼철(2013). 호주 IBP프로젝트가 한국교육에 주는 시사점: 자유학기제 운영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손민호 (2006). 실천적 지식의 일상적 속성에 비추어 본 역량 (competence)의 의미: 지식기반사회? 사회기반지식!, 교육과정연구, 24(4), 1-25.
- 손민호, 조현영 (2014). 민속방법론: 현상학적 사회학과 질적 연구. 경기: 학지사.
- 황세원 (2014).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진로교육 수업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여대생의 신체존중감이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사회적 자기개념과 거부민감성 매개효과 중심으로

신지원, 김민희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takion007@naver.com

초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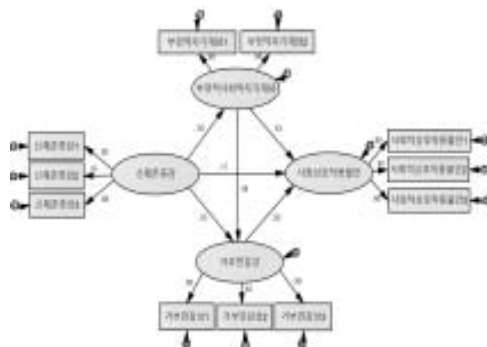
본 연구의 목적은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요구와 함께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사회현상이 불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면서, 그 경로에서 부정적 인지와 함께 거부민감성이 매개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목적

현대사회 특징인 불안이 사회적 상호작용 시 신체 존중감이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하에 부정적 자기 개념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방법

- 연구대상 : 서울, 경기 소재 대학교 만18-27세 여대생 504명
- 측정도구 : 신체존중감, 부정적 자기개념, 거부민감성,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 측정방법 : Amos 22.0(구조방정식모형)



연구결과

신체존중감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으로 가는 직접경로는 유의했지만, 신체존중감에서 거부민감성으로 가는 직접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통합적으로 살펴본 구조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최종모형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경로	효과	95% C.I.	
		상한	하한
NCSS→ RSQ→ SIAS	.088**	.474	.337
BES→ NCSS→ RSQ→ SIAS	-.048**	-.142	-.515
직접효과	-.174**		

주1. *p<.05, **p<.01, ***p<.001

주2. NCSS: 부정적 사회적 자기개념, BES: 신체존중감, RSQ: 거부민감성, SIAS: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논의 및 결론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부정적 사회적 자기개념으로, 외모로 인하여 대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인지가 가장 큰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대학센터에서 여대생이 외모 문제로 대인관계의 불안함을 호소할 경우 스스로 신체를 바라보는 부정적 인식이 문제임을 인식하는 것이 치료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박은아(2003). 신체존중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문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2), 35-56.
- 박신영(2013).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옥주희(2013). 부정적 자기개념과 자기개념 명확성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자기 초점적 주의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그릿 연구에 대한 국내 동향분석

Domestic Trend Analysis for Grit Research

조선화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seonhwa01@hanmail.net

초록

투지 혹은 끈기로 표현되는 그릿(Grit)은 그동안 개인의 성공과 실패를 설명하는 주요특성이었던 지능, 유전, 학업성취, 경험 등과는 다른 특성으로서 주목 받고 있다. 국내에서 수행된 그릿관련 연구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그동안 발표되었던 학위논문과 학술지를 대상으로 전체 24편의 연구를 수집하였다. 이를 연구대상별, 연구설계별, 그리고 측정도구별로 분석, 정리하였다. 그 결과, 첫째, 연구대상별 특징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었으나 특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노인에 대한 연구가 가장 적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연구 설계별 특징으로는 그릿이 설명변인, 예측변인, 그리고 관계검증을 위한 변인으로서 비슷한 비율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었으나, 척도자체의 타당화를 위한 연구는 1편만이 진행되고 있었다. 셋째, 측정도구별 특징으로는 다섯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으며, 특히 Duckworth, Peterson, Matthews, & Kelly(2007)가 개발한 Original Grit Scale(Grit-O)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연구가 가장 많았다. 최근 관심을 갖고 진행되는 연구주제이므로 앞으로는 다양한 접근을 통한 다양한 그릿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목적

최근 개인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개념으로서 그릿(Grit)이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릿은 끈기 혹은 투지로 표현되며 노력, 열정, 추진력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성공을 위해서는 지능, 유전, 학업성취, 경험 등

개인적인 특성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열정이 있고 끈기있게 그 일에 메달리기와 관련된 그릿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하는 Duckworth(김미정 역, 2016)의 주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있다.

이러한 그릿을 이해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 국내에서 수행된 그릿연구를 종합적으로 고찰해봄으로써 향후 그릿연구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그릿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수행된 모든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릿을 국내연구에서는 끈기 혹은 투지로도 표현하고 있어, 그동안 발표된 그릿, 투지, 그리고 끈기의 용어로 사용된 논문을 수집하였으며, 그 결과 학위논문 8편, 학회지 16 편으로 전체 24편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이를 연구대상별, 연구설계별, 그리고 측정도구별 특징으로 분류, 정리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별 특징

<표 1>과 같이, 그릿연구의 연구대상별 특징을 분석한 결과, 전체연구편수는 많지 않으나 전 연령층에서 그릿연구가 수행되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학업 및 생활 속에서 그릿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연령 층에서 다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릿도 성장한다는 Duckworth(김미정 역, 2016)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부대상들 중에서는 특별한 대상 즉, 영재아, 특목고, 운동선수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릿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연구대상별 특징

대상	표집특성				편수	
아동	영재 아동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2학년		1편	5편	
		초등학교 4~6학년		1편		
	일반 아동	초등학교 5~6학년		2편		
		초등학교 6학년		1편		
아동 및 청소년	초, 중, 고등학교				1편	
고등 학생	특수목적 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1~3학년		2편	9편	
	일반계와 특목고 병행	일반계와 영재학교 1~3학년		2편		
		일반계와 자율형 및 사립형 공립 1학년		2편		
	일반계	1~2학년		2편		
		1~3학년		2편		
		남자	1학년			2편
			2학년			2편
			여자	1학년		1편
자연과학계열				1편		
대학생	계열구분없음				1편	
	성인	성인 초기	18세~39세 연구자의 주변인		1편	6편
20대~30대 개방대학 학생			1편			
운동 참여자		육상선수		1편		
		검도생활체육참여자		2편		
		생활체육참여자		1편		
노인	65세 이상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1편	1편	
전체					24편	

2) 연구설계별 특징

<표 2>와 같이 그릿연구의 연구 설계별 특징을 살펴본 결과, 국내용 그릿척도개발을 위한 타당화 연구(1편), 설명변인 연구(7편), 예측변인 연구(8편), 그리고 관계검증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살펴본 연구(8편)로 분류되었다. 전체적으로 그릿연구가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으

며, 아울러 국내에 적합한 척도개발 연구 및 그릿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 연구 등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표 2> 연구설계별 특징

연구설계	내용			편수
그릿자체	척도의 타당화			1편
설명변인	차이규명	성별, 학년별, 환경, 목표성향에 따라 그릿의 차이	4편	7편
	영향력 확인	성격적 특성, 마라톤 참여과정에 따른 그릿의 변화	3편	
예측변인	차이변인	학업성취도와 학교부적응, 성취목표 지향성, 영재와 평재그룹간 그릿 비교	4편	8편
	영향변인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영재교육 만족도,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부정적 피드백에 대한 정서반응, 자아존중감 및 성취 목표성향	4편	
		의사소통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통제소재와 마인드셋과 학업성취 관계, 흥미, 과제집착력, 자기조절 능력 및 과학학업성취간의 관계,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객관적추론과 자기조절학습 효능감관계, 사회적지지와 건강증진 행위간의 관계	6편	
관계검증	매개효과	계획된 연습과 학업성취관계	2편	8편
	조절효과	계획된 연습과 학업성취관계	2편	
전체				24편

3) 측정도구의 특징

<표 3>과 같이 그릿연구의 측정도구별 특징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에 소개된 그릿을 측정하는 도구는 총 5개로 분류되었다. 그릿을 경험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최초의 척도는 Original Grit Scale (Grit-O)로서 Duckworth, Oerterson, Matthews, & Kelly(2007)가 개발한 것이다. 이는 관심의 일관성과 노력의 꾸준함을 측정하는 2개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요인은 각각 6개의 문항이 포함되어 전체 12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본 척도를 이용한 연구는 총 12편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이 척도를 기반으로 2009년에 소개된 Grit-S는 Duckworth & Quinn(2009)가 개발하고 여러 연구 대상 집단들에 대해 광범위하게 타당화시킨 도구로서, 두가지 하위요인이 각 4문항, 전체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0세이상의 어린이를 위한 간편형 측정도구로 우리나라에서 본 도구를 활용한 연구는 4편이다.

또한, Cloninger, Przbbeck, & Svrakic(1991)이 개발한 삼차원 성격질문지 중 끈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출하여 우리나라 권석만(2011)이 번안하여 소개한 척도도 5편의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로부터 문항을 추출하여 끈기 질문지를 연구자가 직접 구성하여 사용한 연구도 2편 있었다. 그 외에 끈기와 유사한 개념을 의미하는 몰입척도를 사용한 연구도 1편 발표되었다.

<표 3> 측정도구의 특징

원저자	측정 도구명	연구명	편수
Duckworth, Perterson, Matthews, & Kelly(2007)	Original Grit Scale (Grit-O)	김혜련(2016), 김희명, 황매향(2015), 남순이(2016), 노영석(2016), 신민, 안도희(2015), 유영란, 유지원, 박현경(2015), 이수경(2016), 이수란(2015), 이수란, 손영우(2013), 이슬비, 배은희, 손영우, 이수란(2016), 최미경(2016), 하혜숙, 임호진, 황매향(2015)	12편
Duckworth, & Quinn(2009)	Grit-S	김미숙, 이성희, 백성희, 최예술(2015), 강명희, 윤성혜, 김도희, 류다현(2016), 문공주, 함은혜(2016), 주영주, 김동심(2016)	4편
Cloninger, Przbbeck, & Svrakic (1991)	권석만 (2011)이 번안한 끈기도구	기미희(2013), 김석일(2009), 김석일과 박성제(2010), 임정숙, 유진(2012), 조규보, 박진우, 이행일(2012)	5편
Jackson, & Marsh(1996)	몰입 척도	한양숙(2015)	1편
선행연구토대로 연구자 구성	끈기 척도	양승용, 권세정(2013), 이정림(2016)	2편
전체			24편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수행된 그릿연구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로서 아직 많은 수의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한계가 있어 다양한 분석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그릿 척도는 현재 최초로 개발된 하나의 척도를 근간으로 여러 집단에 사용하거나 간이형으로 구성하여 다른 연령대에 사용하며, 성격척도와 같은 다른 척도에서 부분적으로 추출하여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여러 척도에서 문항을 일부씩 추출하여 질문지를 구성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신뢰도와 타당도면에서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고 2개나 단일 요인의 척도를 활용하여 연구되어지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향후 그릿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의 문화 심리적 특성에 맞는 척도를 독립적으로 개발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Duckworth(김미정 역, 2016). GRIT, 비즈니스북스.
- 김미숙, 이성희, 백성희, 최예술(2015). 초, 중, 고 학생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및 성별, 학년별 특성,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15(5), 297-322.
- 이수란, 손영우(2013). 무엇이 뛰어난 학업성취를 예측하는가?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과 투지(Grit),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0(3), 349-366.

소아암 생존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탐색적 연구 : 외상후 성장,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를 중심으로

김의연
인하대학교
comsin2@hanmail.ne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소아암 생존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연구참여자는 소아암 완치자 18명(남 11, 여 7; 평균연령 19.7세)였다. 측정도구는 PedsQL 4.0 Generic Core Scale, PTGI, RISC, CROPS, 어려움극복 효능감을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기술통계, pearson상관분석, t-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둘째, 삶의 질은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외상후 성장은 삶의 질의 정서적 영역하고만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외상후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더불어 스트레스 대처는 신체적 영역과 외상후 스트레스를 제외한 모든 변인들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소아암 생존자의 삶의 질 향상에는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소아암 생존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삶의 질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변인인 외상후 성장, 자기효능감, 외상후 스트레스, 스트레스와 대처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다.

연구방법

연구참여자는 소아암 생존자 18명(남 11, 여 7)으로 평균연령은 19.7 ± 4.0 세이다. 측정도구는 삶의 질은 PedsQL 4.0 Generic Core Scale (Varni, et al., 2001), Tedeschi & Calhoun (1996)의 PTGI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Fava 외(1998)의 RISC(rhode island stress and coping inventory), Greenwald & Rubin (1999)의 CROPS (the Child Report of Post-traumatic Symptoms), 어려움극복 효능감(Bandura, 1995)을 사용하였다. 통계분석방법은 상관분석, t-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질의 총점과 하위영역인 신체적 영역, 정서적 영역, 사회적 영역, 학업 영역에 있어서 남녀간의 차이는 없었다. 또한 외상후 성장, 외상후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및 대처에 있어서도 남녀간의 차이는 없었다(표 1).

둘째, 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삶의 질 총점과 각각의 하위영역은 높은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외상후 성장은 정서적 영역만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자기효능감은 외상후 스트레스를 제외한 모든 변인들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스트레스는 외상후 성장과는 부적의 상관관계를, 외상후스트레스와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처는 신체적 영역과 외상후 스트레스를 제외하고 모든 변인들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외상후 스트레스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표 2).

논의 및 결론

소아암 생존자의 삶의 질, 외상후 성장, 외상후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남녀간의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아암 생존자의 삶의 질에

있어서, 남녀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선행연구(최은석, 2004)를 지지한다.

소아암 생존자의 삶의 질은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에 대해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시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어려운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어려움극복효능감이다. 생존자들이 완치판정 후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Kreitler et al., 2007). 또한 스트레 대처가 암 생존자의 삶의 질을 높이데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Maleknia & Kahrazei, 201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소아암 생존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재연구의 기초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표 1. 주요변인에 대한 성차 및 평균, 표준편차

	전 체		성 별		t
	전 체 (n=18)		남 (n=11)	여 (n=7)	
삶의 질 총점	76.49(14.95)		81.16(15.73)	70.50(12.40)	1.47
신체적 영역	81.94(15.03)		84.66(14.35)	77.68(16.18)	0.96
정서적 영역	72.78(21.98)		80.00(19.62)	61.43(21.93)	1.87
사회적 영역	78.89(18.19)		80.91(20.23)	75.71(15.39)	0.58
학업 영역	78.89(18.19)		80.91(20.23)	75.71(15.39)	0.58
외상 후 성장	67.94(22.04)		64.27(24.27)	73.71(18.17)	-0.88
외상 후 스트레스	16.39(6.71)		18.00(7.07)	13.86(5.64)	1.30
자기효능감	28.85(10.84)		28.38(9.90)	29.60(13.41)	-0.19
스트레스	17.67(6.15)		19.73(5.64)	14.43(5.83)	1.92
대처	15.44(4.54)		15.82(4.33)	14.86(5.15)	0.43

표 2. 주요변인에 대한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 삶의 질 총점	1									
2. 신체적 영역	.80**	1								
3. 정서적 영역	.78**	.50*	1							
4. 사회적 영역	.82**	0.37	0.45	1						
5. 학업 영역	.82**	0.37	0.45	1.00**	1					
6. 외상 후 성장	0.28	0.11	.52*	0.12	0.12	1				
7. 외상 후 스트레스	-0.44	-0.29	-0.43	-0.37	-0.37	-0.43	1			
8. 자기효능감	.86**	.58*	.62*	.77**	.77**	.56*	-.048	1		
9. 스트레스	-0.37	-0.37	-0.37	-0.24	-0.24	-.60**	.69**	-.041	1	
10. 대처	.56*	0.21	.64**	.47*	.47*	.54*	-.039	.83**	-.50*	1

* $p < .05$, ** $p < .01$

참고문헌

- 최은석(2004). 청소년의 건강관련 삶의 질 측정 도구 (PedsQL™ 4.0 Generic Core Scale)의 타당도 · 신뢰도 검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ndura, A. (1995). *Manual for the construction of self-efficacy scales*. Unpublished manuscript, Dept. of Psychology, Stanford University, USA.
- Fava, J. L., Ruggiero, L., Grimley, D. M.(1998). The development and structural confirmation of the Rhode Island Stress and Coping Inventory.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21(6), 601-611.
- Kreitler, S., Pleeg, D. & Ehrenfeld, M. (2007). Stress, self-efficacy, and quality of life in cancer patients. *Psycho-Oncology*, 16, 329-341.
- Greenwald, R., & Rubin, A. (1999). Brief assessment of children's post-traumatic symptoms: Development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parent and child scales.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9, 61-75.
- Maleknia, N. & Kahrazei, F.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coping styles and quality of among patients with breast cancer. *Journal of Midwifery and Reprouctive Health*, 3(4), 472-478.
-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6). The pso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gn the positive legar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3), 455-71.
- Varni, J. W., Seid, M., Kurtin, P. S. (2001). PedsQL™ 4.0: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pediatric quality of life inventory™ version 4.0 generic core scales in Healthy and patient populations. *Medical Care*, 39(8), 800-812.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과 자기에 대한 인식

차연실
인하대 교육학과
chayeonsil@nate.com,

박영신
인하대 교육학과
yspark@inha.ac.kr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과 자기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 중독여부 하위집단별(중독, 중독위험, 비중독) 인식을 탐구하였다. 분석대상은 특성화 고등학교 남학생 510명이었다. 측정도구는 박영신(2014)이 제작한 자유반응형 질문지와 스마트폰 중독척도(한국정보화진흥원, 2012)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하는 일은 SNS였으며, 그 다음으로 정보검색, 게임, 여가시간 활용 순이었다. 둘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변과의 소통과 편리함이었다. 그 다음으로 중독 집단은 심심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중독위험 및 비중독 집단은 정보검색을 지적하였다. 셋째,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의 느낌은 평소와 같음, 재미있음, 편리함이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넷째, 스마트폰이 없을 때의 느낌은 평소와 같음이 대표적이었으며, 집단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중독 집단은 불안함을, 중독위험 집단은 불안함과 불편함, 허전함을, 비중독 집단은 평소와 같음을 인식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다섯째, 스마트폰을 할 때의 자기 인식도 평소와 같음이 가장 많았으며, 하위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중독 집단은 몰입함을, 중독위험 집단은 재미있음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비중독 집단은 평소와 같다고 반응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연구목적

이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과 자기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 중독 여부 하위집단별(중독, 중독위험, 비중독) 인식을 탐구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특성화 고등학교 남학생 510명이었다. 측정도구는 박영신(2014)이 제작한 자유반응형 질문지와 스마트폰 중독척도(한국정보화진흥원, 2012)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세 하위집단 모두 SNS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독 및 비중독 집단은 정보검색을, 중독위험 집단은 게임을 지적하였다(<표 1> 참고).

둘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변과의 소통과 편리함을 응답하였다. 이어서 중독 집단은 심심해서, 중독위험 및 비중독 집단은 정보검색을 지적하였다(<표 2> 참고).

셋째,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의 느낌은 평소와 같음이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중독 및 중독위험 집단은 재미있음과 편리함을, 비중독 집단은 편리함과 재미있음 순이었다(<표 3> 참고).

넷째, 스마트폰이 없을 때의 느낌에 대해 비중독 집단은 평소와 같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독 및 중독위험 집단은 불안함과 불편함을 대표적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중독 및 중독위험 집단은 비중독 집단보다 불안함과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 참고).

다섯째, 스마트폰을 할 때의 자기 인식은 평소와 같음, 재미있음, 몰입함 순으로 응답하였다. 비중독 집단은

평소와 같음을, 중독위험 집단은 재미있음을, 중독 집단은 몰입함이라는 반응을 보였다(<표 5> 참고).

<표 1>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하는 일

	전체(%)	중독여부별(%)		
		중독	중독위험	비중독
1. SNS	186(37.5)	22(57.9)	72(41.4)	92(32.4)
2. 정보검색	108(21.8)	7(18.4)	33(19.0)	68(23.9)
3. 게임	102(20.6)	6(15.8)	37(21.3)	59(20.8)
4. 여가시간 활용	64(12.9)	3(7.9)	18(10.3)	43(15.1)
5. 연락	28(5.6)	-	13(7.5)	15(5.3)
6. 기타	8(1.6)	-	1(.6)	7(2.5)
계	496(100.0)	38(100.0)	174(100.0)	284(100.0)

<표 2>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전체(%)	중독여부별(%)		
		중독	중독위험	비중독
1. 주변과의 소통	174(35.4)	15(40.5)	59(34.3)	100(35.5)
2. 편리함	96(19.6)	7(18.9)	28(16.3)	61(21.6)
3. 정보검색	82(16.7)	2(5.4)	26(15.1)	54(19.1)
4. 심심해서	37(7.5)	5(13.5)	16(9.3)	16(5.7)
5. 없음	35(7.1)	1(2.7)	13(7.6)	21(7.4)
6. 재미있음	32(6.5)	4(10.8)	16(9.3)	12(4.3)
7. 여가시간 활용	20(4.1)	1(2.7)	8(4.7)	11(3.9)
8. 기타	15(3.1)	2(5.4)	6(3.5)	7(2.5)
계	491(100.0)	37(100.0)	172(100.0)	282(100.0)

<표 3>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의 느낌

	전체(%)	중독여부별(%)		
		중독	중독위험	비중독
1. 평소와 같음	182(37.1)	12(32.4)	55(31.8)	115(41.1)
2. 재미있음	109(22.2)	11(29.7)	47(27.2)	51(18.2)
3. 편리함	98(20.0)	7(18.9)	34(19.7)	57(20.4)
4. 좋음	67(13.7)	5(13.5)	21(12.1)	41(14.6)
5. 짜증남	15(3.1)	1(2.7)	5(2.9)	9(3.2)
6. 편안함	10(2.0)	1(2.7)	5(2.9)	4(1.4)
7. 몰입함	6(1.2)	-	5(2.9)	1(.4)
8. 기타	3(.6)	-	1(.6)	2(.7)
계	490(100.0)	37(100.0)	173(100.0)	280(100.0)

<표 4> 스마트폰이 없을 때의 느낌

	전체(%)	중독여부별(%)		
		중독	중독위험	비중독
1. 평소와 같음	151(30.6)	6(15.8)	34(19.5)	111(39.4)
2. 불안함	100(20.2)	15(39.5)	39(22.4)	46(16.3)
3. 불편함	92(18.6)	7(18.4)	38(21.8)	47(16.7)
4. 허전함	89(18.0)	5(13.2)	38(21.8)	46(16.3)
5. 심심함	31(6.3)	2(5.3)	10(5.7)	19(6.7)
6. 짜증남	28(5.7)	3(7.9)	14(8.0)	11(3.9)
7. 기타	3(.6)	-	1(.6)	2(.7)
계	494(100.0)	38(100.0)	174(100.0)	282(100.0)

<표 5> 스마트폰을 할 때의 자기 인식

	전체(%)	중독여부별(%)		
		중독	중독위험	비중독
1. 평소와 같음	170(34.9)	10(27.8)	45(25.9)	115(41.5)
2. 재미있음	122(25.1)	9(25.0)	53(30.5)	60(21.7)
3. 몰입함	77(15.8)	11(30.6)	33(19.0)	33(11.9)
4. 좋음	40(8.2)	4(11.1)	10(5.7)	26(9.4)
5. 한심함	28(5.7)	-	15(8.6)	13(4.7)
6. 조용함	18(3.7)	-	7(4.0)	11(4.0)
7. 편리함	14(2.9)	-	3(1.7)	11(4.0)
8. 편안함	9(1.8)	2(5.6)	4(2.3)	3(1.1)
9. 기타	9(1.8)	-	4(2.3)	5(1.8)
계	487(100.0)	36(100.0)	174(100.0)	277(100.0)

논의 및 결론

특성화 고등학교 남학생은 중독, 중독위험, 비중독 집단 모두 SNS를 이용하여 주변과의 소통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친구들과의 소통을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SNS를 활용하여 소통하고 있다는 고재욱(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중독 및 중독위험 집단은 비중독 집단의 청소년보다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기능을 이용하여 재미있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NS, 게임, 정보검색, 동영상 등의 사용으로 사이버 공간상에서 소통하는 나 자신을 재미로 인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11)와 일치한다. 이렇듯 청소년이 스마트폰에 의존하여 일상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자기에 대한 인식으로 비중독 집단은 평소와 같은 느낌이지만, 중독 및 중독위험 집단의 경우 스마트폰에 더 많이 몰입하는 경향이 있어 스마트폰이 없을 때 불안함과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는 선행연구(김은영, 임신일, 2014)와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실태조사, 정책지원 등 건전한 스마트폰 사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고재욱 (2013). 청소년의 스마트폰중독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대인관계·자신감·도래 사교성을 중심으로. 대동철학회, 63, 1-38.
- 김은영, 임신일 (2014). 스마트폰 과다사용 증상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청소년학연구, 21(6), 255-279.
- 박영신 (2014). 스마트폰 사용 청소년용 질문지.
-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11). 청소년 놀이공간으로서 사이버 세계에서의 자기개념: 초, 중, 고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7(1), 81-113.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스마트폰 중독척도.

성별 성격과 행복의 차이에 대한 연구

김정실
인하대 교육학과
wjdtlf0514@hanmail.net

박영신
인하대 교육학과
yspark@inha.ac.kr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성별 성격과 행복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대상은 성인 기독교인 총 398명(남 173, 여 225)이었다. 측정도구는 박영신(2014)이 제작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성격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동조성과 성실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자가 남자보다 동조성과 성실성이 높았다. 둘째, 성별로 전반적인 행복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일부 하위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자가 남자보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통한 행복 및 개인적인 성취를 통한 행복의 정도가 높았다. 성별 성격에 따른 과거, 현재, 미래의 행복수준은 3년 전 행복을 제외하고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성별 성격과 행복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분석대상은 성인 기독교인 총 398명(남 173, 여 225)이었다. 측정도구는 박영신(2014)이 제작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성격이 $\alpha = .64 \sim .83$, 행복 $\alpha = .77 \sim .93$, 생활만족도는 $\alpha = .89$ 로 양호하였다.

연구결과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성격의 차이를 t-검증한 결과 동조성은 $p < .001$ 수준에서, 성실성은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값이 높았다. 반면에 성격의 다른 하위변인인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은 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 참조)

둘째, 성별로 전체 행복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행복의 하위변인인 가정의 화목, 경제적 여유, 건강, 자기조절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원만한 인간관계($p < .001$)와 개인적 성취($p < .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표 2> 참조).

성별에 따른 과거, 현재, 미래의 행복수준의 차이는 3년 전 행복($p < .05$)을 제외하고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남자가 여자보다 3년 전 행복을 약간 높게 지각하였으나, 그 외 과거, 현재, 미래 행복수준에서 성차가 없었다(<표 3> 참조).

논의 및 결론

첫째, 성별에 따른 성격은 여자가 남자에 비해 동조성과 성실성이 높았다. 이는 40-50대 기혼여성들이 동일한 연령대의 남자에 비해 동조성과 성실성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김명소, 성은현, 김혜원, 1999)와 일치한다.

<표 1> 성별 성격의 차이 t-검증

종속변인	독립변인	N	평균	표준편차	t
신경증	남	163	2.61	.61	-.78
	여	218	2.66	.61	
외향성	남	165	3.25	.55	-.46
	여	219	3.27	.64	
개방성	남	165	3.27	.49	.32
	여	214	3.25	.54	
동조성	남	165	3.53	.48	-5.30 ***
	여	216	3.78	.46	
성실성	남	162	3.61	.56	-2.84 **
	여	217	3.77	.55	

p<.01, *p<.001

<표 2> 성별 행복의 차이 t-검증

종속변인	독립변인	N	평균	표준편차	t
가정의 화목	남	171	4.12	.73	-.51
	여	223	4.16	.72	
경제적인 여유	남	170	3.02	.89	-1.33
	여	221	3.14	.87	
원만한 인간관계	남	170	3.45	.76	-4.96 ***
	여	222	3.81	.68	
개인적인 성취	남	171	3.37	.80	-2.18 **
	여	219	3.54	.73	
건강	남	171	3.22	.84	.54
	여	222	3.17	.92	
자기조절	남	172	3.64	.76	-1.44
	여	221	3.76	.82	
행복(전체)	남	169	3.47	.64	-1.72
	여	216	3.58	.60	
행복(Diener)	남	171	3.21	.99	-.66
	여	223	3.27	.89	

p<.01, *p<.001

<표 3> 성별 과거, 현재, 미래의 행복수준 차이 t-검증

종속변인	독립변인	N	평균	표준편차	t
3년전 행복	남	170	6.31	2.37	2.30 *
	여	224	5.76	2.33	
1년전 행복	남	170	6.68	2.21	1.50
	여	224	6.36	2.03	
현재 행복	남	170	7.19	1.99	.19
	여	224	7.16	1.90	
1년후 행복	남	170	7.74	2.00	-1.41
	여	224	8.01	1.84	
3년후 행복	남	170	8.19	1.97	-1.68
	여	224	8.51	1.88	

*p<.05

둘째, 성별로 행복의 전반적인 수준에서 성차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성별에 따라 행복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박영신과 김의철(2009a)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성별로 전반적인 행복 및 행복의 일부 하위변인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원만한 인간관계를 통한 행복과 같은 일부 하위변인에서 차이가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행복의 하위요인들을 정교하게 분류하여 성차의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박영신과 김의철(2009b)도 성별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 연구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통한 행복의 정도가 더 높았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그동안 행복한 삶을 위해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이 있어 왔다. 김의철과 박영신(2006)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인남녀 집단 모두에서 원만한 인간관계가 행복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 중의 하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인간관계로 인한 행복이 성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명소, 성은현, 김혜원(1999). 한국 기혼여성(아줌마)들의 성격특성과 주관적 삶의 질.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4(1), 41-55.
- 김의철, 박영신(2006). 한국 사회에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5), 1-28.
- 박영신, 김의철 (2009a).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 한국인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특집호, 95-132.
- 박영신, 김의철 (2009b). 한국 성인 남녀가 행복에 이르는 길: 직업성취, 자녀성공, 정서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3), 467-495.

직업유형별 직업에 대한 회의, 직업적성, 직업흥미 : 초등교사와 대기업 직장인을 중심으로

조은형
인하대학교
j7e9h007@hanmail.net

박영신
인하대학교
yspark@inha.ac.kr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직장인의 직업에 대한 회의 및 직업적성과 직업흥미를 직업유형별로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대상은 초등교사 177명(남 33, 여 144), 대기업 직장인 129명(남 99, 여 30)이었다. 측정도구는 박영신(2015)이 제작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유형별 직업에 대한 회의경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하였다. 초등교사가 대기업 직장인보다 직장에 회의감을 더 느끼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직업유형별로 직업적성을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초등교사는 직업이 적성에 맞는다는 반응이 많은 반면에, 대기업 직장인은 그저 그렇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다. 셋째, 직업유형별 직업흥미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초등교사는 직업에 대한 흥미가 있다는 응답이 높았고, 대기업 직장인은 직업에 대한 흥미가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높았다.

연구목적

직장인은 직업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한다(이경란, 2015). 그러나, 직장인은 자신이 선택한 직장생활에서도 뚜렷한 이유 없이 직장 일에 불만이 생기기도 하는 회의를 경험한다(김현수, 김수정, 2015). 이에 본 연구는 직업유형별 직업에 대한 회의 및 직업적성과 직업흥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분석대상은 초등교사 177명(남 33, 여 144), 대기업 직장인 129명(남 99, 여 30)이었다. 측정도구는 박영신(2015)이 제작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문항은 직업에 대한 회의경험여부, 직업에 대한 적성, 직업에 대한 흥미로 구성되었다. 분석방법으로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유형에 따라 직업에 대한 회의경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초등교사가 대기업 직장인보다 직업에서 회의를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표 1> 직업별 직업에 대한 회의 경험 차이 χ^2 검증

직업별회의 경험	초등 교사(%)	대기업 직장인(%)	전체(%)
있다	135(76.3)	75(58.1)	210(68.6)
없다	42(23.7)	54(41.9)	96(31.4)
전체	177(100.0)	129(100.0)	306(100.0)

$$\chi^2 = 11.39 \text{ (df} = 1, p < .01)$$

둘째, 직업유형별 직업적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하게 나타났다. 초등교사는 직업이 적성에 맞다는 반응이 많은 반면에, 대기업 직장인은 그저 그렇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다(<표 2> 참조).

<표 2> 직업별 적성차이 χ^2 검증

직업별 직업적성	초등 교사(%)	대기업 직장인(%)	전체(%)
전혀 안 맞음	1(.6)	3(2.3)	4(1.3)
거의 안 맞음	4(2.3)	9(7.0)	13(4.2)
그저 그렇다	43(24.3)	67(51.9)	110(35.9)
조금 맞음	86(48.6)	45(34.9)	131(42.8)
매우 맞음	43(24.3)	5(3.9)	48(15.7)
전체	177(100.0)	129(100.0)	306(100.0)

$$\chi^2 = 44.64 \text{ (df} = 4, p < .001)$$

셋째, 직업유형에 따른 직업흥미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초등교사는 직업에 대한 흥미가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고, 대기업 직장인은 직업에 대한 흥미가 그저 그렇다는 응답률이 높았다(<표 3> 참조).

<표 3> 직업별 직업흥미 차이 χ^2 검증

직업별 직업흥미	초등 교사(%)	대기업 직장인(%)	전체(%)
전혀 없음	-	5(3.9)	5(1.6)
거의 없음	2(1.1)	14(10.9)	16(5.2)
그저 그렇다	34(19.2)	54(41.9)	88(28.8)
조금 있음	95(53.7)	51(39.5)	146(47.7)
매우 있음	46(26.0)	5(3.9)	51(16.7)
전체	177(100.0)	129(100.0)	306(100.0)

$$\chi^2 = 58.68 \text{ (df} = 4, p < .001)$$

논의 및 결론

첫째, 초등교사와 대기업 직장인 모두 직업에서의 회의를 경험하였다. 직장인은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도 수입, 업무 등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지속되면 직장에서 회의감을 느낀다(이기세, 2007). 이와 같이 직업에 대한 회의는 경력, 연령과 관계없이 조직적, 개인적 환경에 따라 유동적이다(김희수, 조은정, 최정선, 2011). 따라서, 본 연구대상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초등교사는 대기업 직장인보다 직업에 대해 적성이 맞고, 흥미를 더 느끼는 경향을 보였다. 이경란(2015)은 직업별로 직업선택의 이유가 다름을 밝혔는데, 그 중 교사집단이 다른 직업에 비해 적성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직업흥미는 직장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여 직무만족도를 높인다(어윤경, 2014). 또한, 개인의 적성은 직무수행능력과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주휘정, 2012). 이는 직업에서 적성과 흥미가 중요함을 시사 한다.

참고문헌

- 김현수, 김수정 (2015). 신입사원의 개별성과 관계성이 조직 몰입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실천공학교육논문지, 7(1), 39-45.
- 김희수, 조은정, 최정선 (2011). 유치원 교사의 교사발달단계, 직무수행능력 및 교사효능감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6(5), 495-517.
- 박영신 (2015). 직장인의 직업에 대한 회의경험, 직업적성, 직업흥미 질문지.
- 어윤경 (2014). 특성화 고교생의 진로경로에 따라 개인 및 학교 환경, 직업흥미 분화가 개인-직업환경 흥미일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학연구, 20(2), 331-355.
- 이경란 (2015). 교사와 일반 직장인의 스트레스 비교 분석.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기세 (2007). 성인체육편: 사설경호원들의 직업의식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1(단일호), 683-690.
- 주휘정 (2012). 신규 대졸자의 직장적응 곤란 유형별 영향요인 분석. HRD 연구 (구 인력개발연구), 14(1), 73-93.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학교 부적응의 관계

한미순
인하대 교육학과
ms971026@hanmail.net

가명숙
인천송현초등학교
kamoung@naver.com

박영신
인하대 교육학과
yspark@inha.ac.kr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학교 부적응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 총 369명(학업성취집단별 상집단 187, 중집단 163, 하집단 19)이었다. 측정도구는 박영신(2015)이 제작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학교 부적응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부적 상관이었다. 학업성취 상집단은 부모 존경과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학교 부적응을 낮추는데 영향이 있었다. 중집단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전체와 학교 부적응은 부적 상관이었다. 둘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학교 부적응의 관계는 대체로 정적 상관이었다. 부정적 양육태도의 통제는 학업성취 상집단과 중집단에서 학교생활스트레스 증상에 영향이 있었다. 학업성취 상집단은 학교 비흥미에 영향이 있었으며, 중집단은 친구 거부와 학교 부적응을 높였다. 하집단은 부모의 무관심과 적대가 친구 거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긍정적 양육태도, 부정적 양육태도)와 학교 부적응의 관계를 학업성취 집단별로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 총 369명이었다. 측정도구는 박영신(2015)이 제작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긍정적 양육태도의 신뢰도는 $\alpha=.73\sim.88$ 의 수준을, 부정적 양육태도의 신뢰도는 $\alpha=.70\sim.83$ 을, 학교생활 스트레스 증상은 $\alpha=.89$ 의 신뢰 수준으로 양호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학교부적응의 관계는 대부분 부적 상관($r=-.15\sim-.28$)이 나타났다. 학업성취별 상집단은 부모의 정서적 지원($r=-.16\sim-.23$), 부모 존경($r=-.15\sim-.20$)이 학교 부적응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중집단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전반에 걸쳐 학교 부적응($r=-.22\sim-.28$)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표 1>, <표 2>, <표 3> 참조)

둘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학교 부적응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정적 상관($r=.15\sim.59$)이었다.

학업성취별 상집단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학교 비흥미($r=.21\sim.27$)에서 정적인 관계로 나타난 반면, 중집단은 친구 거부($r=.23\sim.31$)와 학교 부적응($r=.23\sim.26$)에서 다른 변인들보다 정적 상관이 있었다. 하집단은 무관심($r=.59$)과 적대($r=.49$)가 다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의 변인들보다 가장 높은 매우 정적인 상관계수를 보였다.

특히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변인 중에서 통제는 상집단과 중집단에서 학교생활 스트레스 증상과 상관의 강도가 낮지만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표 4>, <표 5>, <표 6> 참조)

<표1>초등학생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학교 부적응의 상관: 학업성취 상집단

	긍정적 양육태도	정서적 지원	성취압력	부모 희생	부모 존경	부모에 대한 기대일치
학교 부적응						
선생님 귀중	-.16*	-.01	-.17*	-.18*	-.14	
친구 거부	-.21**	-.08	-.11	-.18*	-.13	
학교 비효미	-.23**	-.01	-.15*	-.20**	-.19*	
학교 부적응	-.13	-.07	-.04	-.15*	-.11	
학교생활						
스트레스 증상	-.10	.05	.06	-.06	.02	

* $p < .05$, ** $p < .01$

<표2>초등학생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학교 부적응의 상관: 학업성취 중집단

	긍정적 양육태도	정서적 지원	성취압력	부모 희생	부모 존경	부모에 대한 기대일치
학교 부적응						
선생님 귀중	-.10	-.07	-.11	-.09	-.16*	
친구 거부	-.25**	-.07	-.15	-.26**	-.26**	
학교 비효미	-.11	-.06	-.11	-.12	-.13	
학교 부적응	-.28***	-.22**	-.22**	-.25**	-.25**	
학교생활						
스트레스 증상	-.05	.12	.04	.07	.05	

* $p < .05$, ** $p < .01$, *** $p < .001$

<표 3>초등학생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학교 부적응의 상관: 학업성취 하집단

	긍정적 양육태도	정서적 지원	성취압력	부모 희생	부모 존경	부모에 대한 기대일치
학교 부적응						
선생님 귀중	-.16	.01	.00	-.13	-.41	
친구 거부	-.32	-.09	.13	-.15	-.40	
학교 비효미	-.17	-.41	.32	.16	-.35	
학교 부적응	-.07	-.25	.41	.13	-.26	
학교생활						
스트레스 증상	.16	.03	.02	.34	.08	

<표 4>초등학생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학교 부적응의 상관: 학업성취 상집단

	부정적 양육태도	통제	갈등	무관심	거부	적대
학교 부적응						
선생님 귀중	.05	.14	.13	.16*	.10	
친구 거부	-.03	.14	.18*	.19*	.19**	
학교 비효미	.06	.26***	.21**	.25**	.27***	
학교 부적응	-.05	.15*	.09	.17*	.18*	
학교생활						
스트레스 증상	.16*	.25**	.10	.25***	.24**	

* $p < .05$, ** $p < .01$, *** $p < .001$

<표 5>초등학생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학교 부적응의 상관: 학업성취 중집단

	부정적 양육태도	통제	갈등	무관심	거부	적대
학교 부적응						
선생님 귀중	-.07	.04	.20*	.10	.11	
친구 거부	-.04	.23**	.24**	.28***	.31***	
학교 비효미	.00	.13	.17*	.09	.24**	
학교 부적응	-.08	.25**	.23**	.25**	.26**	
학교생활						
스트레스 증상	.17*	.15	.10	.14	.16*	

* $p < .05$, ** $p < .01$, *** $p < .001$

<표 6>초등학생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학교 부적응의 상관: 학업성취 하집단

	부정적 양육태도	통제	갈등	무관심	거부	적대
학교 부적응						
선생님 귀중	.42	.28	.33	.35	.27	
친구 거부	-.08	.22	.59**	.29	.49*	
학교 비효미	.00	.27	.03	.10	.14	
학교 부적응	-.01	.19	.05	.10	.03	
학교생활						
스트레스 증상	.43	.11	.10	.32	.09	

* $p < .05$, ** $p < .01$

논의 및 결론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학교 부적응의 관계에서 긍정적 양육태도는 학교 부적응과 부적 상관이었다. 반면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는 학교 부적응과 정적 상관을 보여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생이 인식한 부모양육태도는 학교 부적응의 하위변인들과 학업성취 집단별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에서 상집단은 부모의 정서적 지원과 부모 존경이 학교 부적응을 낮추며, 중집단은 부모에 대한 기대일치와 성취 압력, 부모 희생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부모의 수용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최효임, 김성일, 2004)와 온유형 양육태도(이강욱, 이미현, 한복환, 2009)가 학교생활 적응을 더 잘하게 한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부정적 양육태도인 갈등, 무관심, 거부, 적대가 학교 부적응에 정적 상관을 보였고, 통제의 양육태도는 학업 성취별 상집단과 중집단에서 학교생활 스트레스 증상에 영향이 있었다. 부모의 통제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서구문화와 달리 관심, 애정표현의 간섭으로 본다는 연구결과(박영신, 김의철 2000; 양환옥, 박영신, 2016)와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초등학생이 학교 적응 에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 박영신, 김의철 (2000).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38(2), 109~147.
- 양환옥, 박영신 (2016). 부모자녀관계가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문화 및 사회문제 심리학회, 추계학술대회, 116~117.
- 이강욱, 이미현, 한복환 (2009).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격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비즈니스리뷰, 2(2), 181~201.
- 최효임, 김성일 (2004). 부모의 양육태도와 초기 청소년의 학교 생활 적응. 한국청소년연구, 15(2), 57~92.

정서지능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유머생성과 유머스타일의 매개효과

한정민 김민희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jeongminh@gmail.com / pseudo@kcgu.ac.kr

초록

본 연구는 성인의 정서지능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 이 관계에서 유머생성과 유머스타일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 560명(남209명, 여348명)을 대상으로 특질 상위 기분척도, 다면적 유머감각 척도 중 유머생성 하위척도, 그리고 유머 스타일 척도, 삶의 만족척도, PANAS 중 정적정서목록,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에 응답하게 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정서지능과 적응 간 관계에서 유머생성과 유머스타일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서지능과 삶 만족, 긍정정서경험, 대인관계 유능성으로 측정한 심리적 적응 간 관계에서 유머생성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정서지능과 삶 만족을 제외한 긍정정서경험, 대인관계 유능성 간 관계를 긍정유머스타일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의 정서지능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 이 관계에서 유머생성과 유머스타일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과 유머감각이 높은 사람들은 높은 인지적, 정서적 안녕감(Well-Being)을 보고한다(Mayer & Gaschke, 1988., Thorson, J. A., Powell, F. C. 1993). 이에 심리적 적응을 고려할 때 개인의 인지, 정서적 측면외 사회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

야 한다는 Ryff(1989)의 주장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적응을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영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적응에 대한 정서지능과 유머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 560명(남209명, 여348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정서지능을 측정하는 특질 상위 기분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 유머생성을 측정하기 위해 다면적 유머감각 척도(Multidimensional Sense of Humor Scale; MSHS)중 유머생성 하위척도, 그리고 긍정유머스타일과 부정유머스타일을 측정하는 유머 스타일 척도(Humor Styles Questionnaire; HSQ)를 사용하였다. 또한 심리적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인지적 영역의 적응은 자신의 전반적 삶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반영하는 삶의 만족척도를, 정서적 영역의 적응은 PANAS 중 정적정서목록을, 사회적 영역의 적응은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정서인식과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에서 유머생성과 유머스타일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AMOS (Analysis of Moment Structure)를 이용하여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

첫째, 정서지능, 유머생성, 긍정 유머스타일, 삶 만족, 긍정 정서경험, 대인관계 유능성 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정서지능과 부정 유머스타일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하지만 부정 유머스타일은 삶의 만족, 대인관계 유능성과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둘째, 정서지능과 삶의 만족, 긍정 정서경험, 대인관계 유능성에서 유머생성은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였다. 정서지능과 긍정 정서경험, 대인관계 유능성에서 긍정유머스타일 역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정서지능과 삶의 만족관계에서 긍정 유머스타일은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이지 못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로 심리적 적응에 정서지능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이 경로에서 유머가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유머가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감소시킨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Fredrickson, 1998; Abel, 2002; 강연미, 2005).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정서지능과 유머에 관한 연구들이 아동(김주용, 이지연, 2011; 황인경, 2014) 혹은 청소년 및 성인 초기(강여정, 김나라, 권정혜, 2013; 강수정, 2015)를 대상으로 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초기 성인부터 초기 노년까지의 성인기 전체를 대상으로 정서지능과 유머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둘째, 단일 적응 변인에 초점을 두었던 기존 유머의 효과 연구들을 확장하여 인지, 정서, 사회적 영역의 적응을 모두 고려하였다.

참고문헌

- 강수정 (2015). 대학생의 정서지능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_유머스타일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심리상담학과 석사학위논문.
- 강연미 (2005). 위험생활사건과 유머스타일이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여정, 김나라, 권정혜 (2013). 분열형 성격 대학생들의 유머 이해에 대한 마음이론과 통합적 접근의 비교. 한국심리학회, 32(3), 499-520
- 김주용, 이지연 (2012). 아동의 유머스타일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1), 97-119.
- 황인경 (2014).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와 또래 관계 기술의 관계 : 유머스타일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bel, M. H. (2002). Humor,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Humor-International Journal of Humor Research*, 15(4), 365-381.
- Fredrickson, B. L. (1998). Cultivated emotions: Parental socialization of positive emotions and self-conscious emotions. *Psychological Inquiry*, 9(4), 279-281.
- Mayer, J. D., & Gaschke, Y. N. (1988). The experience and meta-experience of m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1), 102.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f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Thorson, J. A., & Powell, F. C. (199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ultidimensional sense of humor scal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9, 13-23.

청소년자립생활관 거주 남성청소년의 집단생활을 통한 자립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지 연구

조윤정*, 주경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청소년교육학과

vipp73@knou.ac.kr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자립생활관에 거주하는 남성청소년들의 자립과정을 통해 그들의 이해를 돕고, 자립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는 동부지역 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남성청소년 23명이다. 그들의 자립을 심도 있게 탐색하고자 어떠한 판단이나 편견을 배제한 채 객관적인 제 3자의 시각이 강조된 현실주의적 문화기술지(realist ethnography)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연구의 틀을 구성하였다. 자료수집은 참여관찰, 인터뷰, 관련문서 고찰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영역분석, 성분분석, 주제분석 방법을 통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갈망 이탈의 종착점', 둘째, '한국사회에서의 청소년 저항'이다.

연구목적

청소년자립생활관에 거주하는 남성청소년들이 집단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자립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범죄소년과 요보호청소년들의 자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자립생활관거주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자립 지원 방안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청소년자립생활관거주 남성 청소년들의 집단생활을 통한 자립경험을 탐색적으로 접근한 질적 연구이다.

그들의 집단생활이 가지는 역동과 문화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관점과 제 3자의 관점을 오가며 기술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기술지 접근법을 방법론적 틀 구성의 기초로 삼았다.

이를 통해 청소년자립생활관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 청소년 사이에 그들만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를 심층적으로 보고 그들의 일상으로 들어가서 말과 행동 등을 깊이 관찰하여,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동부지역에 위치한 청소년자립생활관을 2016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약 13개월간 54회 방문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연구 결과는 도출된 두 가지 대주제에 따라 서술되었다. 도출된 두 가지 대주제는 첫째, '자유갈망 이탈의 종착점', 둘째, '한국사회에서의 청소년 저항'이다.

'자유갈망 이탈의 종착점'에서는 청소년자립생활관에 입주하여 적응을 위한 과정과 경험에 대한 이야기이다. 하위 영역으로 '자유를 찾아 이탈', '또 다른 자유를 위해 되돌아오기',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

'한국사회에서의 청소년 저항'은 한국사회에서 범죄소년으로 살아가며 맞닥뜨리게 되는 절망과 자괴감을 어떻게 저항하며 그들만의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았는지를 볼 수 있다. 하위영역으로 '헤어스타일로 말하기' '돈만 있으면 다 되요' '귀찮아요, 모르겠어요' 이다.

논의 및 결론

청소년자립생활관 청소년들이 우리사회에서 진정한 자립의 의미는 경제적 자립, 사회적 자립, 정신적 자립의 측면을 고루 갖추는 것이다(노혁, 2004; 신혜령, 2001). 이전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에서 통합된 시민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순 보호의 대상뿐만 아니라 그들을 미래의 훌륭한 인적자원으로 인식하고, 그들이 사회로부터 어떠한 차별과 편견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자립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청소년자립생활관의 문화를 이해 할 수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들의 건강한 성장이 촉진되도록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현재 청소년의 자립을 다룬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무의탁 범죄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며(서은경, 윤옥경, 2008; 이종수, 2002), 특히 무의탁 범죄소년이 시설에 머물고 있는 동안의 자립 경험에 관한 연구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둘째, 진로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 투입이다. 청소년자립생활관 남성 청소년들은 진로와 관련된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직업 훈련제공의 미흡은 안정적인 취업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강복정, 2002). 따라서 진로와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직업준비와 정보에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

청소년 인구에서 무의탁범죄소년의 숫자는 소수이나 이들이 미치는 사회적 파급 효과는 매우 크다. 이들의 현실을 알고 그에 맞는 심도 있고 현실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한국사회에서 소년범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숫자는 7만 명에서 13만 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재범 기간은 1년 이내에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어 범죄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을 중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참고문헌

- 강복정 (2002). 시설청소년을 위한 자립준비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사회적응 및 건강가정형성교육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 제40권 10호, 33-48.
- 김영천 (2016). 질적 연구 방법론 I : Bricoleur. 경기도 아카데미프레스.
- 노혁 (2004).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복지 지원 방안 -자립지원시설 실태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03-R23.
- 노혁 (2010). 청소년복지론. 경기도: 교육과학사
- 대검찰청 (2015). 2015년 범죄분석.
- 서은경, 윤옥경 (2008). 퇴소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시설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소년정책학회. 소년보호연구, 11, 118-141.
- 신혜령 (2001).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 -시설청소년과 보육사들의 인식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1호. 90-124.
- 여성가족부 (2015). 2015년 청소년 백서.
- 유기용,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2).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시. (주)박영사.
- 여성가족부 (2015). 2015년 청소년 백서.
- 이종수 (2002). 무의탁 보호소년의 사회복귀 과정에 관한 단일 사례연구.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지역개발학과 사회 복지전공. 석사학위논문.
- 한국소년보호협회 www.kjpa.or.kr.

비판적 의식(Critical Consciousness)의 한국문화 적용 : 한국판 비판적 의식 척도(CCS-K)의 타당화 예비연구

김태선, 신주연, 송은미
송실대학교, 인하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taesunkim.psych@gmail.com, jyshin@inha.ac.kr, emsong@swu.ac.kr

초록

진로 및 직업심리학에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일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부족했다는 반성 (Duffy, Blustein, Diemer, & Autin, 2016)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개념으로 ‘비판적 의식(critical consciousness)’이 있다. 비판적 의식은 원래 Freire (1993)가 문자해독교육을 통해 비판적 의식 함양과 사회변화 참여를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실제로 사회경제적 약자가 높은 비판적 의식을 가질 때, 높은 학업동기와 성취를 보이고, 어려움을 해결하고자하는 적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El-Amin, et al., 2017). 이러한 비판적 의식은 사회의 억압적 구조가 개인의 일과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 일의 심리학 이론(Duffy, et al.; Prilleltensky, 2012)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판적 의식은 ‘헬조선’, ‘흙수저’ 등의 신조어가 등장하며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구조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함의가 큰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판 ‘비판적 의식’ 척도 타당화 예비연구를 통하여 본 개념의 적절한 한국 문화 적용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Diemer, Rapa., Park, 와 Perry (2017) 가 개발한 비판적 의식척도 (critical consciousness scale)가 한국성인의 비판적 의식을 측정하기에 유용한 도구인지를 검토하고, 한국문화에서 비판적 의식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연구방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인천에 위치한 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93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진은 설문 시 연구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여성(81.3%)이 남성(18.8%)보다 많았으며, 연령은 20대(20.7%), 30대(41.3%), 40대(28.3%), 50대(9.8%)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었다. 연구대상의 과반 수 이상이 일을 하고 있었고 (전업제: 39.6%, 시간제: 25.3%), 직종으로는 전문직 종사(49.4%)가 절반을 차지하였다. 가정 월 평균소득은 500만원 이상(31.0%), 200-300만원(25.3%), 300-500만원(23.0%), 200만원미만 (19.5%)으로 나타났다.

연구도구

비판적 의식척도(Critical Consciousness Scale). 비판적 의식척도는 개인이 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사회정치적 참여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불평등인식(Perceived Inequality), 평등주의(Egalitarianism), 사회정치적 참여(Sociopolitical Participation)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있다. 각 요인은 8문항, 5문항, 9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총 22문항이다. 반응형식은 불평등인식과 평등주의 문항에 대해서는 Likert식의 6점 척도 (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6 = 매우 동의한다)로 표시하고, 사회정치적 참여 문항에 대해서는 각 활동을 얼마나 자주 참여하는지를 Likert식의 5점 척도(1 = 전혀 하지 않는다, 2 = 적어도 1년에 1-2회, 3 = 적어도 몇 달에 1회, 4 = 적어도 1달에 1회, 5 = 적어도 1주일에 1회)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원척도의 개발자인 Diemer의 허락을 받고 번역과 역번역의 표준절차를 통해 한국어로 번안하였다.

Diemer와 동료들 (2017)이 보고한 Cronbach α 계수는 불평등인식 요인이 .90, 평등주의 요인이 .88, 사회정치적 참여 요인이 .85였다.

연구결과

비판적 의식척도의 신뢰도. 본 연구에서 분석한 척도의 신뢰도인 Cronbach α 계수는 불평등인식 요인이 .89, 평등주의 요인이 .84, 사회정치적 요인이 .71으로 나타났다.

비판적 의식척도의 요인별 평균. Likert식의 6점 척도에 대한 반응의 요인별 평균값은 평등주의(M=4.43, SD=.70)가 불평등인식(M=3.94, SD=.62) 보다 높았다. 사회정치적 참여는 5점 척도에 대한 반응이었다 (M=1.28, SD=.34).

집단별 비판적 의식. 성별에 따른 비판적 의식을 비교한 결과, 불평등인식에서 여자(M=3.98, SD=.58)가 남자(M=3.44, SD=.47)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인식을 하고 있었고($t = -3.33, p < .01$) 평등주의 역시 여자(M=4.48, SD=.65)가 남자(M=3.97, SD=.53)보다 높은 인식을 보였다($t = -3.33, p < .01$). 하지만 사회정치적 참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외에 연령별, 가정의 월 소득별 비판적 의식의 각 하위요인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비판적 의식척도의 요인 상관. 3개의 요인간의 상관관계 분석했을 때, 불평등인식과 평등주의는 유호한 정적 상관($r=.27, p < .01$)을 나타냈으나, 사회정치적 참여는 나머지 두 요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최근 상담, 진로 및 일의 심리학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비판적 의식의 개념을 한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탐색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비판적 의식 척도의 한국문화 적합성을 검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 한국판 비판적 의식 척도 (Korean version of CCS; CCS-K)는 요인별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고, 불평등인식과 평등주의는 서로 관련은 있으나 구별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들이 사회의 불평등에 대해 동의하고, 평등을 추구한다는 응답에 비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한 사회정치적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들의 사회정치적 참여가 전반적으로 낮다는 것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비판적 의식의 발달과 촉진, 그리고 사회정치적 참여활동에 대한 각 개인의 태도와 시각은 각 사회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적인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본 척도가 한국판으로 타당화되는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독특한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집단별 비판의식은 성별이외에는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대학원 재학이라는 집단의 동질성이 다른 변인보다 크게 작용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주로 한국사회의 교육 분야에서 논의되어 온 Freire (1993)의 비판적 의식을 일의 심리학과 진로상담분야에 확장하여 적용하고자 한 점에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소규모 편의 표집이 아닌 다양한 배경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비판적 의식 개념과 척도의 한국문화에서의 적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Diemer, M. A., Rapa, L. J., Park, C. J., & Perry, J. C. (201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ritical Consciousness Scale. *Youth & Society*, 49(4), 461-483.
- Duffy, R. D., Blustein, D. L., Diemer, M. A., & Autin, K. L. (2016). The psychology of working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3(2), 127.
- El-Amin, A., Seider, S., Graves, D., Tamerat, J., Clark, S., Soutter, M., Johannsen, J. & Malhotra, S. (2017). Critical consciousness: A key to student achievement. *Phi Delta Kappan*, 98(5), 18-23.
- Freire, P. (1993). *Pedagogy of the oppressed*. New York: Continuum.
- Prilleltensky, I. (2012). Wellness as fairnes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9, 1-21.
- Watts, R. J., Griffith, D. M., & Abdul-Adil, J. (1999). Sociopolitical development as an antidote for oppression—theory and act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7(2), 255-271.

전시 및 홍보자료



글과 그림으로 만나는 ‘아버지가 딸에게 들려준 이야기들’ 전시

한국토착심리아동청소년연구회

- 주 제 아버지가 딸에게 들려준 이야기들
- 장 소 춘계학술대회가 개최되는 하이테크관 대강당 B1층 로비
- 시 간 2017. 4. 29(토) 12:00-18:00
- 내 용

‘아버지가 딸에게 들려준 이야기들’은 한국인의 토착심리 중 부모자녀관계의 연구 결과로서 동화처럼 역사처럼 따스한 내용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삶의 의미를 돌아보며, 인생의 고비 앞에서 길을 잃었을 때, 부모로서 주어진 역할을 어찌 해내야 바른지 고민 될 때 낮은 목소리로 일러주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한 개인의 실천적 삶을 통해 시대의 영웅의 모습이 지식의 높낮이에 있지 않고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가 우리의 영웅이 될 수 있음을 말하는 저자의 마음으로 전시하고자 합니다.

□ 중점 전시내용 History



2014년 시흥도서관 아딸 도서 전시회



2014년 안산 책문화 축제



2015년 월포축제



2016년 인하대 심리치료 동계세미나 북 콘서트

□ 설립 목적

한국토착심리아동연구회는 한국인의 토착심리를 토대로 하여 부모자녀관계를 회복하고 소통과 나눔 효실천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전시회 및 다양한 체험부스 운영을 통하여 남녀노소 시민을 대상으로 소통과 나눔, 효 실천의 가치를 전파하고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의 정서적 지원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데 연구회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 (우- 1544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35

연락처 | 전화 031-410-6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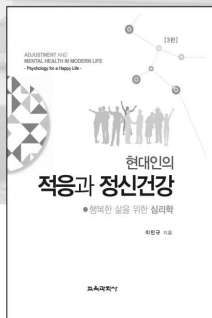
이메일: henmami@naver.com

교육과학사

“책과 함께하는 배움의 기쁨”

도서출판 교육과학사는 교육학(교육학 학술도서 및 대학교재, 유아, 아동교육, 특수교육학) 분야에 중심을 두고 관련학문인 심리학, 사회복지, 경제경영학, 청소년교육학, 기타 교양도서를 발간해 온 전문 출판사로서, 국내 우수한 교육학자들의 돌보아주심에 힘입어 지난 1970년 5월 18일 회사 창립 이래 40여 년 동안 2,000여 종에 이르는 도서를 출간하여 왔습니다.

위기에 처한 교육을 살리고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교양과 지식의 확산을 위해 깊이 있는 학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저희 교육과학사가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현대인의
적응과 정신건강(3판)**
이만규 지음
46배판/480쪽/20,000원
ISBN 978-89-254-11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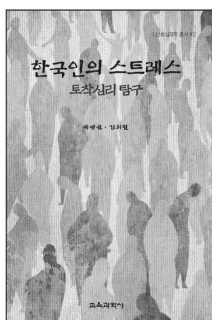
발달심리학
John W. Santrock 지음
이지연, 임춘희, 김수정 공역
46배/692쪽/33,000원
ISBN 978-89-254-1013-5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의
심리학**
Ronald B. Adler, Russell F. Proctor 공저
장태연 역
46배/660쪽/22,000원
ISBN 978-89-254-0954-2



학습과 기억
David A. Lieberman 지
김기종, 박영신, 장미숙, 정윤재 공역
46배/688쪽/29,000원
ISBN 978-89-254-073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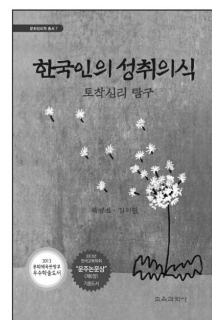
**한국인의 스트레스
-토착심리 탐구**
박영신, 김의철 공저
크라운판/488쪽/25,000원
ISBN 978-89-254-1065-2



**한국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학교폭력**
박영신 지
크라운판/572쪽/29,000원
ISBN 978-89-254-09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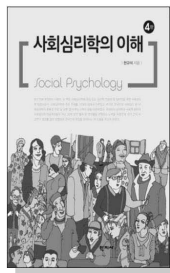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토착심리 탐구**
박영신, 김의철 공저
크라운판/644쪽/33,000원
ISBN 978-89-254-0791-3



**한국인의 성취의식
-토착심리 탐구**
박영신, 김의철 공저
크라운판/656쪽/33,000원
ISBN 978-89-254-066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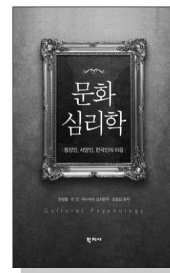
(주) 학지사 깨끗한 마음을 드립니다.



4판
사회심리학의 이해

한규석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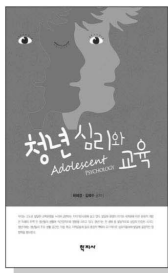
- 사륙배판
- 776면
- 27,000원



문화심리학
-동양인, 서양인,
한국인의 마음-

한성열 외 공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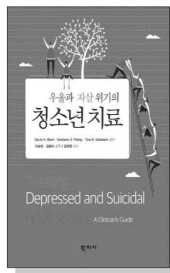
- 크라운판
- 592면
- 23,000원



청년 심리와 교육

허혜경 외 공저

- 크라운판
- 480면
- 18,000원



우울과 자살 위기의
청소년 치료

지승희 외 공역

- 크라운판
- 352면
- 18,000원



청소년 자살행동
치료프로그램 매뉴얼
-사례 분석 기반 개입-

함경애 외 공저

- 크라운판
- 208면
- 16,000원



청소년 학교폭력
-이해·예방·개입을 위한
지침서-

김혜원 저

- 크라운판
- 360면
- 17,000원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

(재)청소년학교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문제연구소 편
이규미 외 공저

- 사륙배판
- 416면
- 19,000원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실제

최승원 외 공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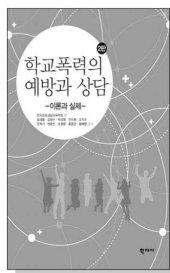
- 신국판
- 128면
- 9,000원



생활지도와
학교폭력의 이해

송선희 외 공저

- 크라운판
- 392면
- 19,000원



2판
학교폭력의 예방과 상담
-이론과 실제-

한국초등상담교육학회 편
송재홍 외 공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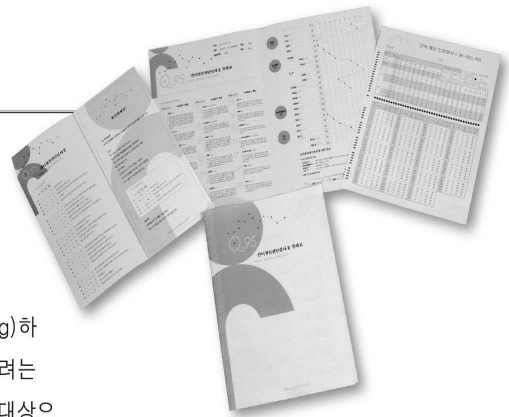
- 사륙배판
- 496면
- 20,000원

(주) 학지사 02) 330-5114 www.hakjisa.co.kr

중앙적성연구소 검사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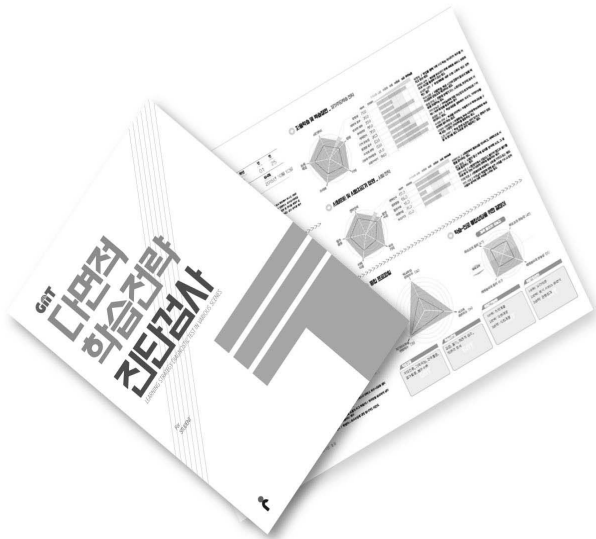
· 간이정신진단검사 II (K S C L 9 5) 15-20분 소요

간이정신진단검사II는 정신건강 문제가 의심되는 '위험집단'을 선별(screening)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되어 학생정신건강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정신건강을 점검하려는 학생이나 일반인, 처음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으려 상담소를 내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검사로서 우울(주요우울장애), 불안(범불안장애), 공황발작(공황발작), 임소(광장)공포(임소공포증), 강박증(강박장애), 강박성격,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분노/공격(간헐적 폭발성장애), 신체화(신체화장애), 조증(조증삽화), 편집증(망상장애), 정신증(조현병), 자살, 중독, 수면문제, 스트레스 취약성[대인민감성, 낮은 자기-조절력]등 17가지 심리적 문제증상 척도와 타당도 척도 2개(긍정왜곡, 비밀관성)를 제공하는 검사입니다.



GnT 다면적 학습전략진단검사 40-50분 소요

본 검사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학습장면별 학습전략을 측정하여 학습자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고, 효율적인 학습전략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검사로 시험전략, 시험불안의 정도와 불안유발요인을 알아볼 수 있으며 교과목의 흥미, 유능감을 학습전략과 동시에 파악될 수 있도록 하여, 학업성취 뿐 아니라 학업을 진학 및 진로방향과 연결지어 탐색해 보도록 구성하였습니다.



GnT 학습특성 동기유형검사 40-50분 소요

본 검사는 학습동기의 수준 뿐 아니라, 관계, 재미, 필요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현재 학습동기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검사로 애착, 놀이경험, 모델링 등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과 불안, 짜증, 우울, 무기력 등의 정서와 관련된 요인을 학습동기적 측면에서 제시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위한 구체적인 상담전략을 제공하는 검사입니다.

